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02월
교육 학석사학위 논문

아동미술교육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조 창 주

아동미술교육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Art Therapy Program
on Child Art Education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조 창 주

아동미술교육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상 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조 창 주

조창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 윤 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의 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상 호 인

2009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vi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1. 아동미술교육의 목적과 이해	5
1). 아동미술교육의 의의와 목적	5
2). 아동미술의 특징	7
3). 아동미술의 발달단계	9
2. 미술치료의 목적과 이해	15
1). 미술치료의 개념	15
2). 미술치료의 역사	16
3). 미술치료의 교육과정과 기법	19
4). 아동미술치료사의 자세	27
3.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상관관계	29
1). 미술활동을 통한 내담자와 치료자의 상호관계	30
2).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	31
3). 학교교육에 미술치료의 필요성	35
III. 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및 결과	38
1.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미술교육 적용 과정	38
2.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	38
1). 회기별 교수-학습 지도안	41

2). 차시별 변화 특성.....	54
3). 개인별 변화 특성	74
4). 프로그램 설문조사 및 분석.....	85
IV. 결 론	90
참 고 문 헌	93
부 록	95

표 목 차

<표1> Kellogg의 기본 난화 형태 20가지	13
<표2> 미술매체의 특성(Landgarten, 1987)	22
<표3> 미술활동을 통한 상호관계	30
<표4>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39
<표5>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	39
<표6>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41
<표7> KHTP	43
<표8> 나의 모습	45
<표9> 명화 비틀기	46
<표10> 15소년 표류기의 주인공이 된다면...	48
<표11> 서로 다른 두 얼굴	49
<표12> 나를 응원해요!	51
<표13> 선물 주고받기	52
<표14> 1회기	54
<표15> 2회기	57
<표16> 3회기	60
<표17> 4회기	62
<표18> 5회기	65
<표19> 6회기	67
<표20> 7회기	70
<표21> 8회기	72
<표22> A아동의 행동변화 특성	74
<표23> B아동의 행동변화 특성	78
<표24> C아동의 행동변화 특성	82
<표25> 개인별 미술활동 만족도	85

<표26> 자발적 규칙준수	85
<표27> 협동화 참여도	86
<표28> 총체적 프로그램 만족도	87
<표29-1> 각 프로그램 선호도	87
<표29-2> 각 프로그램 선호도	87
<표29-3> 각 프로그램 선호도	88
<표29-4> 각 프로그램 선호도	89

그 림 목 차

<그림1-1>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55
<그림1-2>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55
<그림1-3>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56
<그림1-4>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56
<그림1-5>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57
<그림1-6>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57
<그림2-1> KHTTP	58
<그림2-2> KHTTP.....	58
<그림2-3> KHTTP.....	59
<그림2-4> KHTTP.....	59
<그림2-5> KHTTP.....	59
<그림2-6> KHTTP.....	59
<그림3-1> 나의 모습.....	60
<그림3-2> 나의 모습.....	60
<그림3-3> 나의 모습.....	61
<그림3-4> 나의 모습.....	61
<그림3-5> 나의 모습.....	62
<그림3-6> 나의 모습	62
<그림4-1> 명화 비틀기.....	63
<그림4-2> 명화 비틀기.....	63
<그림4-3> 명화 비틀기.....	64
<그림4-4> 명화 비틀기.....	64
<그림4-5> 명화 비틀기.....	64
<그림4-6> 명화 비틀기	64
<그림5-1> 협동화	65

<그림5-2> 협동화	66
<그림5-3> 협동화	67
<그림6-1> 가면 만들기	68
<그림6-2> 가면 만들기	68
<그림6-3> 가면 만들기	69
<그림6-4> 가면 만들기	69
<그림6-5> 가면 만들기	69
<그림6-6> 가면 만들기	69
<그림7-1> 깃발 만들기	70
<그림7-2> 깃발 만들기	70
<그림7-3> 깃발 만들기	71
<그림7-4> 깃발 만들기	71
<그림7-5> 깃발 만들기	71
<그림7-6> 깃발 만들기	71
<그림8-1> 손 본뜨기	72
<그림8-2> 손 본뜨기	72
<그림8-3> 손 본뜨기	73
<그림8-4> 손 본뜨기	73
<그림8-5> 손 본뜨기	73
<그림8-6> 손 본뜨기	73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Art Therapy Program on Child Art Education

Cho Chang-Ju

Advisor : Prof. Park Sang-Ho Ph.D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children face heavy pressure due to fast-changing social structure when they adapt themselves to new environments. In early childhood, excessive stress is likely to result in deteriorating children's personality, life habits and even health and eventually triggering emotional problems, which is viewed as one of grave social problems. Yet the importance of emotional education for children is still overlooked in our country where just knowledge-centered education is prevailing.

Under the circumstances,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is increasingly stressed, since that makes it possible for children who don't yet get used to expressing themselves through language to represent their feelings in a secondhand manner and thereby contributes to their emotional stability and cleansing.

Creative art activities enables children to explore the environments around them with delight by being exposed to a variety of materials,

and they feel they did something worthwhile by choosing particular materials and making art works from the selected materials. Such an opportunity for emotional display has an effect on stepping up their emotional cleansing and treatment, which is conducive to their daily routine lives.

Therefore intensive research efforts should be channeled into developing art therapy programs and applying them to art education so that art education could contribute to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the medium of ar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art therapy program geared toward improving emotional education for children and to explore ways of applying it to school education.

The following efforts were made in this study to serve the purpose:

First,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for modern children as a sort of emotional education was discussed in the introduction, and the need for the utilization of art therapy programs was suggested.

Second, theories of child art education and art therapy were investigated to consider how to combine art education and art therapy.

Third, children aged between 8 and 11 participated in a program presented in this study three times, and all the process was observed and recorded to look for their changes in every session to find out in which way the art therapy program should be utilized.

Fourth, there were some suggestions in the segment of conclusion about new directions for art educ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아동은 대부분의 가정이 한 두 자녀만을 낳음으로 인해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지나쳐 어릴 때부터 교육의 과잉과 풍족한 물질의 소비, 혀약한 체력, 자립심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해야 할 일상적인 활동조차 못하는 경우가 표출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아동의 인성, 생활습관, 건강까지 황폐화 시킬 수 있으므로 아동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긍정적인 한 사람의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기는 성인기에 비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시기이므로 자신의 내적 상처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상처가 마음의 병으로 더욱 더 깊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아동기의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격성이나 갈등을 분출시켜 문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최근에는 아동의 정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예술 활동을 활용한 ‘예술치료’기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술치료는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아동에게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언어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아동의 진단과 지도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또한 미술치료는 다양한 재료의 경험으로 환경을 즐겁게 탐구하고 발견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성공감과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자아의식과 자기긍정감을 갖게 해주며 실제 세계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미술작업에서의 창의적인 과정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전인적 인간육성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입시 중심 교육체제 속에서 아동기에도 오직 학업 결과만으로 한 사람이 평가되고 있다. 미술교육과정에서도 새로운

교육과정이 제시되었으나 실제의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기능적인 면을 부각 시켜 필요한 기능이나 표현만을 갖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술교육이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모든 아동들이 내재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여 조절할 수 있는 인성 교육적 측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술치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에 국내에서 미술치료 활동이 폭넓게 소개되고 그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 여러 대학과 치료학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몇몇 대학에서는 미술치료과정이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으로 개설되어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학교 환경에서 공식적으로 미술치료가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현장에서도 일반 교사들의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여 많은 교사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미술치료에 관한 연수를 받고 있으며,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방과 후 활동, 특기적성 교육이란 형태로 관심 있는 교사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미술치료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현장에서도 미술치료의 장점과 효과에 대해 인정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아동미술교육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 교육과정에 적용한 미술치료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아동들의 자기에 대한 자긍심 및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기능이 높아졌다고 밝힌 연구, 아동의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힌 연구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하였거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하였더라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한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하여 효과성을 증명하였거나 설문조사만으로 프로그램의 총체적 효과를 밝히고 있어서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아동이 어떠한 정서적, 인지적 변화가 있는지를 밝힌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각의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아

동에게 주는 구체적 변화를 고찰하여 그 효과를 더욱더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미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미술교육과 미술치료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미술치료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그리고 직접 미술치료관련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을 진행해봄으로써 아동미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미술교육의 목적과 의의,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 이해한다.

둘째, 미술치료의 개념과 장점, 아동미술치료의 교육과정과 기법, 효과에 관해 살펴본다.

셋째,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술교육에 적용 가능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술교육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제시한 지도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아동의 행동변화를 관찰 기록하여 고찰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미술교육과 미술치료에 관련된 자료를 문헌과 인터넷, 미술치료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선행 연구물들을 참고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접점을 찾는다.

둘째, 아동미술교육에 적용 가능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본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한다.

셋째, 본 연구자가 적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기별, 차시별, 아동별 관찰기록과 작품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고찰하고 아

동의 정서교육 측면으로서 미술교육을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시사점을
모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미술교육의 목적과 이해

1). 아동미술교육의 의의와 목적

미술은 방법이나 내용도 다르지만 결론도 각자 다르게 표현되고 다양한 생각이나 사고에 이르도록 교육되어짐으로써 개개인의 서로 다른 시각이나 생각, 서로 다른 감정이나 표현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은 고정된 시각이나 관념, 그리고 개념화에서 탈피시켜 주며 독특한 자신의 개성을 알게 해주고 자신의 성격에 맞는 표현과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적 사고를 일깨워 주고 장려하는 교과 목표를 갖고 있다.

아동기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는 신체 행동, 언어, 그림 등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아동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시각적 표현인 미술은 아동기의 감성적 욕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아동기의 미술표현은 인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역이 점차 성장과 변화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다.

아동미술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분석해 보면

첫째, 아동이 동료들과 한자리에 모여 그림을 그리고 조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과 동료들의 활동을 비교하면서 관찰력과 평가법을 배우게 되며 미술활동을 통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창조력을 기르게 된다.

둘째, 아동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므로 긴장을 풀 수 있고 만족감을 얻게 되어 감수성이 풍부해진다.

셋째, 그림 그리기, 가위질, 뜯어 붙이기 등으로 손가락의 민첩성과 손목, 팔의 소(小)근육 운동기술 발달, 눈과의 협응을 통한 조화 능력 등 신체의 감

각 향상을 도모한다.

넷째, 아동은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그리는 동안 아름답게 느끼고 꾸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심미적 표현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미술교육은 매우 중요하다.¹⁾

아동미술교육의 목적은 건강한 정서 함양과 창의적 표현개발, 사회성의 발달, 지적, 신체적 발달을 돋는데 있다.

셋째, 아동들은 성인들 보다 더욱 빈번한 정서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쉬운 존재들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기에 기복이 심하며 화를 자주내고 변화에 민감하며 불안해한다. 이러한 불안한 감정을 해소시키는데 아동들의 조형 활동은, 만들고 꾸미는 과정에서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대상이나 환경, 작품과의 만남으로 친절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와 감정을 길러주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브리지(Bridges)에 의하면 정서는 유아기 동안에 분화하여 비교적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발달한다고 했다.

둘째, 아동은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아동들의 조형 활동은 언어전달과 의사교환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버트(Burt)는 아동들의 그림은 언어와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유용한 방법이며 자기계시(self-revelation)의 한 양식이라고 했다. 아동들의 그림은 남의 생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대상의 모델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생각,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로웬펠드(Lowenfeld)는 아동이 창의력을 지닐 때 비로소 자기만족과 능력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미술활동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여러 과정은 교사 중심이기 보다는 아동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므로 미술교육은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적합한 교과라고 하겠다.

셋째, 이러한 각자의 자기표현활동으로 자신과 관계되는 주변 환경, 양식,

1) 양은진, “학교교육에 미술심리치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05), p.4

규범을 경험하고 사물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알게 된다. 아동들이 여럿이 함께 협동 작업으로 서로 어울려 만들고 꾸미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느끼고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생활의 방법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아동들이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등 조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여러 곳을 모두 움직여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계속하는 동안 신체의 조정능력이나 통합능력을 기르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얻기 위해 계속 활동하는 과정을 거쳐 지적 능력의 발달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아동기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고 새로운 생각들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위해서 교사는 아동의 미술활동에서 기능적 능력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2). 아동미술의 특징

아동미술은 그들의 성장의 반영이다. 왜냐하면 아동은 자신의 연령과 성숙도, 환경에 따라 그림의 내용과 모델이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미술은 그들의 개성, 정서, 상상의 산물이기도하다. 그러므로 단일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표현된 아동화를 대할 때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의 시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첫째, 아동미술은 일정한 발달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조작(난화)→상징→사실로 발달하는 과정이며 미분화에서 분화적 표현으로 대상과 거리가 먼 비례와 색채에서 대상과 가까운 색채 등으로의 발달이다.

둘째, 아동은 미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정서, 감정, 상상력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한다.

셋째, 아동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중심

적 표현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소재나 주제가 자신 중심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가까운 것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먼 것은 축소하여 표현한다. 즉, 자신에게 관심 있는 대상이나 부분은 크거나 색채, 형태 등으로 과장하고 자신과 관련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대상은 생략하거나, 무시, 축소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넷째, 아동의 미술표현은 이야기 전개식, 설명적인 경우가 많다. 아동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야기 전개를 위해 한 화면에 나타내기도 하며 뜻대로 표현되지 않을 때는 언어로 화면에 쓰거나 말로 보충하려 한다.

다섯째, 어린이는 대상의 도식(schema)이나 상징을 개발하여 그것을 모든 표현에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도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적 표현을 말하는데 이것은 상징표현기에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물이나 산, 집, 나무 등에 대한 상징화된 도식이 만들어지고 그 도식은 어디에 표현되든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며 평면표현에는 평면도식이 나타나고 입체표현에는 입체저고 도식이 나타난다.

여섯째, 대부분의 아동은 자연에 가깝게 사실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런 표현을 ‘잘 그런 그림’이나 ‘잘 만든 작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10세 정도의 아동은 대상에 대해 공들여서 그대로 표현한 것이 미술이라고 생각하고 미술 수준을 판단할 때는 사실주의의 도달 정도가 기준이 된다.²⁾

아동미술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있었으며 그 연구결과는 미술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중 아이스너(Eisner)는 아동미술에 대한 많은 연구를 분석하여 열 일곱가지 일반적인 특징³⁾을 끌어내었다.

- ① 아동미술은 아동의 연령 단계에 따라 변한다.
- ② 아동미술의 복잡성의 정도는 아동이 성숙함에 따라 증가한다.
- ③ 아동이 성숙함에 따라 표현에서 전체적인 구조의 구성력에 대한 감각이

2)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2003), pp.72-74

3) 아이스너(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예경, pp.134-142

향상된다.

④ 평면표현에서나 입체 표현에서나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⑤ 4~8살의 아동은 상징성이 강한 표현을 주로 하며 점차 사실적인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된다.

⑥ 유치원 아동의 난화는 균육운동과 활동에서 비롯된 시각적 만족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⑦ 아동그림에 나타나는 문화의 정도는 그들의 개념 성숙과 관련되어 있다.

⑧ 아동들이 표현해 낼 수 있는 형태의 양식은 나이와 관련되어 있다.

⑨ 아동의 드로잉과 페인팅은 서로 다른 의도에 의한 것이다.

⑩ 아동이 사용하는 형태, 색채, 구성은 그들의 인성 및 사회적 발달과 관련 되어있다.

⑪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더라도 아동, 특히 유치원 단계 아동들이 창조하는 시각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⑫ 학령기 아동의 가장 일반적인 주제는 인물이다.

⑬ 모델이나 정물이 바로 앞에 있더라도 상징이나 도식을 먼저 그린다.

⑭ 표현능력은 청소년기에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⑮ 유치원이나 저학년의 아동은 형태의 배경이나 구성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려진 형태에만 집중한다.

⑯ 미술표현의 기능면에서 의미 있는 성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⑰ 아동은 시각적으로 분명한 형태를 선호하며 그들의 성장단계 및 발달단계와 관련된 것을 좋아한다.

3). 아동미술의 발달단계

1800년대 후반과 20세기 초에 걸쳐 아동의 미술표현에 관심을 가진 많은 미술교육자나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아동의 그림발달에서 관찰된 단계들을 기

술하기 시작했는데 초기 연구들은 아동이 일반적으로 세 단계의 그림 발달단계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1. 난화기(scribbling stage) : 선을 조직적으로 여기저기에 그리고 후기에는 선과 원모양을 한 둥어리의 형태로 끼적거림
2. 도식기(schematic stage) : 사람이나 사물, 주위 환경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식이 발달됨
3. 사실기(naturalistic stage) : 더욱 사실적이고 실물에 가까운 세부묘사까지 할 수 있음

이러한 초기 연구는 아동의 그림 발달단계에 좀 더 세부적이고 특별한 정보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하여 발전하였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명칭이나 단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적인 각 학자별 발달단계를 알아보고 각 학자의 이론에서 아동기에 해당하는 시기까지만 나열하겠다.

1) 로웬펠드(V. Lowenfeld)⁴⁾

로웬펠드는 미술을 통한 아동의 성장이 사고를 조직하는 과정과 인지능력의 발달과 유사하다고 믿었는데 미술표현의 많은 부분에서 운동기술이나 지각력, 언어, 기호조직화, 감각력, 공간적응력 등 아동의 능력에 대한 효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① 난화기(The scribbling stage : 2~4세) : 초기 그림은 흔히 움직임이 많다가 후에 지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 무질서한 직선과 곡선을 포함한 다양한 끼적거리기가 나타난다. 이 단계의 후반부에는 낙서 형태에 명칭을 붙인다.

② 전도식기(The preschmatic stage : 4~7세) : 구상주의적 기호의 초기 발달단계. 특히 사람을 표현하는 기본 형태가 나타난다.

4) V. Lowenfeld(1903-1960)는 펜실베니아 주립대 미술교육 교수 역임.

③ 도식기(The Schmatic stage : 7~9세) : 구상주의적 기호의 지속적 단계. 특히 물건, 상태, 색에 대한 도식이 생기고 기저선(base line)을 사용한다. 겹쳐 그리기와 점·면과 측면이 혼합 외면과 내면이 함께 공존하고 투시(X-Ray)그림이 나타난다.

④ 형태적 사실기(The Drawing realism stage : 9~11세) : 공간의 깊이와 자연스러운 색을 나타내는 기술이 발달하고 미적 표현에 있어서 정교함이 증가한다.

2) 리드(H. Read)⁵⁾

1924년 허버트 리드는 그의 저서 ‘예술을 통한 교육’에서 아동화의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① 착화기(2~5세)

무의미한 끼적거림이 나타나는 시기로 차츰 무엇인가로 생각하고 의미 있는 끼적거림으로 발전해 간다.

② 선묘사기(4세)

시각적 조절이 진보하는 시기로써 사람의 형태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원으로 된 머리, 눈은 두 점, 다리는 한 쌍의 선으로 표현하는데 각 부분의 완전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태여 조립하려 들지도 않는다.

③ 묘사적 상징기(5~6세)

무질서하고 엉성한 형태 묘사는 점차 정리되나 소박한 상징적 낙서도 하는 시기. 사람의 묘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묘사력이 부족해 혼란스러운 묘사에 그친다. 사물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하여 느끼는 대로 자기중심적 형태로 그리며 반복해 그리는 경향이 있다.

④ 묘사적 사실기(7~8세)

5) H. Read, Education through Art, pp.108-169, Faber and Faber, London, 1958. 리드는 용의 정신분석 심리학의 영향으로 아동의 개인적인 그림을 분류하여 보편적으로 해석 하였다.

사물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대상을 인식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주로 그린다. 자기중심적인 경험화의 표현이며 현실의 대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희구하는 기원적 형태의 묘사라고 할 수 있으며 장식적 표현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⑤ 시각적 사설기(9~10세)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민감해져 조금씩 대상을 풀게 그리며 자연에서 주제를 찾아 그리게 되고 사물을 묘사할 때 평면적으로 표현하다 점차 명암을 넣어 입체적인 면을 나타내려고 하며 중첩과 투시법, 원근법을 알게 되어 명암의 의미를 알게 된다.

3) 베트(C. Bert)⁶⁾

① 난화기(2~5세)

- 맹목적 난화기: 아무 목적 없이 선을 그어 댄다.
- 목적적 난화기: 연필자국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이 그려놓은 흔적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다.
- 모방적 난화기: 팔 운동이 분화되어 손목 운동과 손가락 운동으로써 시각적인 발달과 함께 어른의 글씨 쓰는 것을 흉내 내는 데 불과하다.

② 선화기(4세)

시각적 조절이 진보되는 시기로 사람의 모습을 머리는 원으로, 눈은 점으로, 다리는 두 개의 선으로 표현되며 주관적인 그림을 그린다.

③ 기술적 상징기((5~6세))

시각적인 그림보다 개념적인 그림을 그린다. 스키마(schema)는 보다 세부적이고 아이템(item)은 지각의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idea)의 연상에 의해서 보다 많이 제시된다. 정면과 측면의 인물이 한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6) 오종숙 「유아미술의 이론과 실제」, (백록 출판사, 1998), pp.41-42
김정. 「아동회화의 이해」, (창지사, 1985), p.538

④ 시각적 사설기((9~10세))

주위환경 및 자연을 보고 그리는 단계로 투시적인 그림과 원근법이 시도되며 하나의 물체에 다른 하나의 물체를 겹치는 그림이 발견되며 풍경화도 이 무렵부터 즐겨 그린다.

4) 켈로그(R. Kellogg)⁷⁾

켈로그는 아동의 초기 그림 활동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를 하였고 더 진보된 미술 표현 벌달로 난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① 낙서시대(2~3세)

2세 어린이의 그림을 통하여 20가지의 난화 형태를 분류하고 이 20가지의 기본 난화는 미술활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표1> Kellogg의 기본 난화 형태 20가지

난화 1	• '	점	난화11		폐곡선
난화 2		하나의 세로선	난화12		지그재그 또는 물결무늬선
난화 3	—	하나의 가로선	난화13		고리단선
난화 4	\ \	하나의 사선	난화14		겹고리선
난화 5	□	하나의 곡선	난화15		소용돌이선
난화 6		겹세로선	난화16		중부선
난화 7	=====	겹가로선	난화17		겹선의 원
난화 8	\\\\\\	겹사선	난화18		둥글게 퍼지는 원

7) R. Kellogg, 「Analyzing children's Art, California」, National press book, 1970
김동연 외, 「아동미술심리이해」,(학지사, 2002) p.125

난화 9		겹곡선	난화 19		교차된 단선
난화 10		개곡선	난화 20		불완전한 원

② 만다라(mandals)형

만다라란 원에 대한 고대 동굴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로써 다양한 선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린이가 원을 그리스식 십자가와 대각십자가로 사등분, 팔등분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켈로그는 만다라 형태가 도식기의 추상적인 형태로 이끄는 중요한 연속적 부분이 된다고 보았다.

③ 방사선 형태(The radials)

구체적인 묘사 이전의 추상적인 형태로 한 점이나 작은 면에서 선이 뻗어 나오는 형태이며 어린이가 사람을 그릴 때 팔과 다리를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④ 사람(The humans)

수정된 만다라 형태에서 점차 몸 부분을 발전시켜 나타낸다. 초기에 사람을 그릴 때는 관찰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그리려는 발명적인 생각에서 그린다. 팔이 없는 사람을 그리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 아닌 아동에게는 더 좋게 보이며 어떤 비율에 의해서 머리나 다리를 만들어 내는 심미적 견지에서 그린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인물은 노력이 아니라 아동의 지적 증력의 전개라고 하였다.

⑤ 초기회화(4~5세)

4세 이후부터 사람, 동물, 집, 건물, 그 밖의 다른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리게 되는 초보단계이다. 우연히 도형들이 집합하여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고 아동자신이 실제 사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미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2. 미술치료의 목적과 이해

1).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에서 편집자인 울만(E-Ulman)이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던지 간에 공통된 의미는 시각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돋기 위한 시도’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그녀는 미술치료라는 용어를 분석하여, <미술>과 <치료>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했다. 그 하나는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미술은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서 전달된 상징적 회화이며 미술치료는 본질적으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법의 도입 수단으로 주장하고 있다.⁸⁾

미술치료는 시각예술, 창조 작업, 인간의 발달, 행동, 성격, 정신건강 및 기타 여러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합적인 치료 형태로서 기본적으로는 ‘미술과 심리학’ 두 가지 분야의 결합을 의미한다. 미술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어 인간의 문화적, 사회적, 인격적 발달과정을 증명하고 있는 예술로서 종교적, 미적,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미술적 활동은 인간 개인이 처한 삶의 어려운 상황을 표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키우는데 기여하며 자기 동일화의 경험도 하게 한다.

치료는 심리학적 기준으로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하여 인간의 병리적 행동과 경험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증상이 경감되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것을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하여 열심히 들어주는 것,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창작방법을 활용하여 증상의 치유나 경감이 되도록 돋는 것, 정신성장

8) 한국미술학회편,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동화문화사, 2000) pp.33-34

과정을 촉진하게 돋는 것, 남의 감정에 대한 이해심이 증진되도록 도와주는 것 등이다.

2). 미술치료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미술표현의 욕구는 인간의 본성적인 충동으로 인류의 역사와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라스코 동굴벽화와 같은 거대한 원시동굴 안에 그려놓은 산과 강 그리고 동·식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미술적 활동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원시시대의 미술은 미학적인 근거와는 상관없이 풍요로움과 다산 또는 어떤 나쁜 것으로부터의 안전을 구하는 의미에서 주술적 목적으로 미술을 창조해왔다.

고대 샤머니즘 의식, 부적, 무속화,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 등도 미술치료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그려냄으로써 상징화 작업을 한 행위로 치료적인 의미가 부가되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미술이 지니는 치료적 힘은 많은 문화를 통하여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으나, 임상차원의 치료적 접근으로서의 미술을 인식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미술치료의 기원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19세기 초반 독일의 정신병원 의사들이 미술활동을 작업치료라는 포괄적 관점의 한 부분으로 환자치료에 미치는 예술적·정서적 효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미술치료라는 개념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미술치료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산업화의 발전으로 노동과 생산형태가 변하면서 인간 개인의 생활양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인간성까지 변질되어 가는 사회적 현상에 근거한다. 이 시기는 산업화에 따라 기계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에 따라 인간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개인의 존재는 점차 수단화되고 소외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술의 발달만큼 인간의 정신병리적 현상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이며 미술가인 한스 프린츠혼(H. prinzhorn)은 1919년에서 1921년 까지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그린 5000여 장의 그림, 소묘, 끌라쥬, 조소 등을 수집하여 1922년 ‘정신병자들의 그림’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조형 예술과 심리학과 정신 병리학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미술 활동이 환자들의 심리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미술활동을 정신 병리적 관점에서 소개한 이러한 시도는 그 시대의 클레, 에른스트, 뒤 뷔페, 브르통 등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 시기에 심리학과 문학과 미술 분야에서는 인간의 무의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술적 표현을 통하여 인간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프린츠혼(H. prinzhorn)은 독일에서 미술치료의 시작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프로이드(Freud)의 정신 분석적 이론과 경험에 입각하여 치료를 위한 미술행위가 전문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는 꿈속에 표현된 이미지와 무의식에 대한 이론들을 발전시켰으며 미술표현은 인간 정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프로이드(Freud)는 중세의 거장들의 작품을 분석하였는데 미켈란젤로(Michelangelo)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작품은 유아기 경험에서 영향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로도 프로이드(Freud)는 꿈과 같은 무의식적인 것들의 상징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융(Jung)은 이미지가 무의식 속에 남게 되면 인간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실린 이미지를 의식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미술활동이라고 하였다.

미술치료의 학문적 토대는 프로이드(Freud)나 융(Jung)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으나 현재의 미술치료와 같은 의미로 명명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미국인 나움버그(M. Naumburg)로, 1940년대부터 직접 미술교육의 한

방법으로 ‘자발적인 그림(Spontaneous art)’을 시도한 후 그것을 그림치료의 한 모델로 개발하여 ‘치료적 양식으로서의 미술표현(Art in Therapy)’을 도입하였다. 나움버그(M. Naumburg)는 무의식적 사고와 감정이 그대로 표현된다 는 것을 믿고 미술을 통한 정신분석적 치료를 도입하여 그림의 전이와 상징 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즉, 미술을 치료과정에서 도구로 보았으며, 내담자 들이 자신의 꿈과 이미지를 단순히 언어로 표현하게 하기보다는 그림으로 그리게 함으로써 Freud의 개념을 더욱 심도있게 발전시켰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움버그(M. Naumburg)의 뒤를 이어 크레이머(E. Kramer)는 정신분석학 이론을 배경으로 상징성을 통한 해석보다는 미술활동 을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억압된 충동에 접근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을 배설하고 파괴적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것에 주목하여 미술창작 자체로 치료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를 치료라고 보는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을 도입하였다.

이 둘의 대립되는 접근법은 울만(Ulman)을 통해 통합되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울만은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절충적인 미술치료 접근법을 고안해 내어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인간의 내적 갈등과 승화의 중요한 두 개념을 도입하고 치료나 미술 쪽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적인 미술치료를 개발하여 미술치료를 독립된 분야로 발달시켰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미술치료 전문지(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가 창간되었고, 이어서 미국미술치료학회(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가 창립되어 전문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미술치료를 실제적으로 적용한 사람은 Kwiatkowaka로 1958년 미국국립정신 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여러 환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정신분열증 환자 및 신경증 환자들을 주로 가족미술치료를 통한 치료활동을 하였으며, 그 기록은 「미술을 통한 가족치료와 평가(Family therapy and evaluation through art, 1978)」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후 연구는 대상관계이론을 미술치료에 접목한 로빈스(Robbins) 그리고

융(Jung)의 적극적 명상을 도입한 와드슨(Wadeson), 아동미술치료에 탁월한 루빈(Rubin)과 말키오디(Malchiodi)등으로 이어졌다.⁹⁾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산발적으로 시행되다가 1982년 ‘임상예술학회’를 창설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 심리학과 특수교육 분야에서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예술치료에서 세분화된 미술치료로는 1992년 ‘미술치료학회(Korea Art Therapy)’가 결성되어 교육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 등록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술치료사 교육과정이 학술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몇몇 미술치료학회의 본격적인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대학과 연구소, 미술치료단체, 문화센터,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미술치료에 대한 강좌들이 점점 늘어가는 실정이고 전문미술치료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미술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

3). 미술치료의 교육과정과 기법

(1). 아동미술치료의 과정

아동에 대한 미술치료과정은 7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즉, 아동의 시험적 태도 표출, 신뢰감 형성, 노출과정, 의사소통, 직면, 이해와 수용, 대처와 분리로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미술치료의 진행과정은 도입, 활동,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① 도입 : 치료사와 내담자가 서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치료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미술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아동과 치료사가 서로 친밀해 지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간단한 놀이나 긴장이완을 위한 호흡법 등을 하기도 한다.

9) 권준범, “미술심리치료검사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2), pp.30-31

② 활동 :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는 단계이며, 내담자가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불필요한 대화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

③ 토론 : 치료사와 내담자가 자신의 작품을 관찰하고 감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치료사와 내담자의 작품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관계에 신뢰가 형성되고 안정이 되면서 많은 정보와 느낌을 공유할 수 있다.

(2). 미술치료의 시간적 구성

미술치료의 시간 구성은 치료목표나 대상,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된다.¹⁰⁾ 치료 기간과 빈도, 사용될 매체, 특정의 활동, 치료 종료 등이 시간 계획에 포함된다. 언어에 의한 접촉을 하며 시간계획, 도구의 선택, 그림의 주제 선정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진다. 치료시간에는 대상에 따라 성격적으로 강박적인 아동의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작품의 완성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아동의 경우에는 제한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일반적으로 미술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간 구성은 1회기 당 60분씩 주 1~2회 정도 하고 있고 연령과 장애 상태·집중력에 따라서 5~10분으로 끝낼 수도 있다. 보통 치료종료 시점은 치료사의 판단에 의하므로 마지막 회기는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때에 따라서는 종료시점을 미리 계획하였다가 연장하기도 한다.

(3). 미술치료의 매체

최상의 미술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익숙한 전문적인 치료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술치료사는 이러한 매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담자에게 맞는 목적이 부합된 미술활동을 계획하고 적당한 매체를 제공하여 최적의 미술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

10) 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p.44

다.

미술매체는 파스텔이나 크레파스, 수채물감, 붓 등 비교적 간편한 매체가 적절하다. 이러한 매체는 유아에서 노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쉽고 편리할 뿐 아니라 미술치료사가 되도록 간접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상태에서 의미 있는 미술활동 작품을 얻기에도 내담자들의 심리적 투사가 쉽다. 또한, 복잡한 매체보다는 스스로 작품을 완성하기 쉬워서 내담자들에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매체의 선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고려 점은 촉진과 통제이다. 내담자의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작업공간과 아울러 다양한 색상과 충분한 크기의 종이와 점토 등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의 도구는 사람을 질리게 할 수 있으므로 내담자에 따라 치료사는 개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

미술치료사 랜드가튼(Landgarten)은 미술 매체의 통제정도를 단선화하여 체계화 하였다. 연필이나 색연필은 정밀하고 세부적인 묘사를 할 수 있고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통제성이 강한 재료로 보았고 수채화 물감이나 젖은 점토와 같이 물기가 많은 재료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재료로 생각하였다.

말키오디(Malchiodi)는 심각한 충격을 경험했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과 작업을 하면서 매체가 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과잉행동을 하는 아동들과 작업할 때는 마카펜으로 그리거나 콜라주와 같은 통제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들의 에너지 방출 수위를 낮추고 분노를 감소시켜서 조직적인 경험을 하게 하였다. 반대로 학대를 받거나 수줍음을 많이 타서 표현활동이 위축된 아동들은 통제성이 약한 물감이나 부드러운 점토와 같이 유동성이 강한 매체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겁게 놀도록 하여 그들의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게 하였다.¹¹⁾

11) 권준범, 상계논문, pp.35-36

미술치료 작업의 본질적인 요소는 매체의 사용이다. 창조적 기능과는 별개로 미술매체는 부가적인 목적을 제공한다. 그것은 내담자의 애정적인 상태를 강화시키거나 소멸시킬 수도 있고 자기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왜곡된 방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미술치료사는 재료의 특성과 용법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한 매체를 제공하여 내담자에게 불필요한 좌절을 겪지 않게 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어 치료의 효과 및 속도를 최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겠다.

<표2> 미술매체의 특성(Landgarten, 1987)

젖은 점토	그림 물감	부드러운 점토	오일 페스텔	두꺼운 켄트지	꼴라쥬	단한 점토	얇은 켄트지	색연필	연필
1	2	3	4	5	6	7	8	9	10

가장 낮게 통제 <—————————> 가장 높게 통제

(4). 미술치료의 기법

미술치료기법은 그 방법이나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 될 수 있는데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의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정신역동지향적 미술치료, 인간중심주의적 미술치료, 발달적·행동적·인지적 미술치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치료 형태의 미술치료와 집단형태의 미술치료로 나눌 수도 있고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기법을 논의해 볼 수도 있다. 미술치료가 심리진단과 치료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미술치료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연속적,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한 구분이 어렵지만 본 글에서는 편의상 심리진단적 측면과 치료방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가. 진단적 도구로서의 미술

진단으로서의 미술치료가 자칫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진단을 할 때에는 결과물만 보고 내담자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진단을 할 때는 대상의 연령, 환경, 상황, 그리고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런 요소들을 모두 파악한 뒤에야 치료가 진단을 위해 쓰이게 된다.

진단 방법으로는 투사검사가 대표적이며 인물화(Draw a man Test)에 의한 지능검사나 성격검사, 집·나무·사람 검사(House-Tree-Person Test), 나무그림검사, 가족화에 의한 성격진단 검사 등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골라 간단히 살펴보겠다.

① 자유화

제재나 방법을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그리게 하고, 색채사용, 선과 형태, 공간 이용과 공간적 형태, 내용(부모, 형제, 자신, 산, 태양 등)을 분석한다.

② 과제화법

내담자의 이상행동에 대한 내면의 욕구와 근원을 잘 알 수 있는 작업으로 인물, 가족, 친구, 집, 나무, 산, 동물, 길 등의 과제를 미리주고 내담자가 상상화를 그리게 한다. 인물화, 묘화완성법, 나무그림, 집 그림 검사, 산과 해의 묘화법, 풍경구성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③ 나무그리기법

진단에 많이 사용되며 열매가 달린 나무를 한 그루 그리도록 지시한다. 나무그림을 그리게 하여 진단할 때는 나무그림 검사기준을 참조하여야 하고 대체로 줄기, 가지, 뿌리, 열매, 잎, 전체 인상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④ 집·나무·사람 검사(HTP)

진단도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사전, 사후 검사에도 유용하다. 4장의 종이에 나누어 그리는 방법과 한 장에 다 그리는 방법도 사용되며, 운동성을 가미한 동적 HTP(KHTP)도 개발되어 유용하게 사용한다.

⑤ 가족화(DAF)와 동적 가족화(KFD)

내담자가 가족을 그리게 하여 가족의 서열, 분위기 또는 가족의 지각을 파악하는데 쓰인다. 최근에는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FCCD와 PSCD)를 통해 부, 모, 자기의 관계를 진단한다. 또한 동물 가족화를 그려 내담자의 가족관계나 심리도 파악할 수 있다.

⑥ 학교 생활화(KSD)

학교의 친구와 선생님을 포함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여 내담자의 학급집단 내의 지위나 역할, 적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⑦ 풍경 구성법

도화지에 산, 강, 길, 집, 나무, 사람, 꽃, 돌 등을 특정한 방향 제시 아래 그림을 그리게 하여 하나의 풍경이 되도록 하여 그것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치료가능성의 평가와 문제점의 추측과 관찰에 유용하다.

⑧ 협동화법

가족이나 내담자들이 소집단을 이루어 한 장의 종이에 협동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법이다. 집단치료에 유용하며 자발성의 정도, 경험의 표출, 협동성, 그리는 위치와 내용, 그림순서, 주의력 등을 관찰하여 분석한다.

⑨ 난화 게임법

유아들의 심리평가에 사용하고 있으나 심리치료나 언어치료에도 응용되고 있다. 난화를 제시하고 그림을 완성하게 하여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꾸며 나가게 한다. 정서의 안정과 이완 등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술치료의 초기나 말기에 사용되며 치료진행 중에 작업의 촉진을 위해 쓰이기도 한다.

⑩ 점토 만들기

점토의 질감과 유동성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감각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이 작업은 대상관계가 부족한 내담자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⑪ 과거 · 현재 · 미래 그리기

내담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꿀라쥬를 통해 나타내게 하여 자신을 발견하

고 자각하는 자아개념형성 프로그램이다.

나. 치료도구로서의 미술

미술작업을 통해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는 것을 미술 치료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술 치료 과정은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표현 그 자체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발현하여 인지적인 깨달음과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어 자신의 생각과 창의력을 조형언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심리적 치료효과를 내재하게 된다. 여기서는 한국미술치료학회(1994)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① 테두리법

내담자에게 도화지를 제시하여 내담자가 보고 있을 때 용지에 테두리를 그어서 건네주는 방법이다. 묘화를 자극하고 공포를 줄일 수 있으며 자아가 혀 약한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테두리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원을 그려주고 원안에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하게 하여 과잉행동, 주의산만 등을 통제할 수 있다.

② 끌라쥬 기법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술치료 기법으로, 잡지나 신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내용들 중 자신이 붙이고 싶은 것들을 붙여 내용을 만드는 기법이다. 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표현이 쉽고 정확한 감정 전달에 용이한 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진 매체가 많아야 한다. 자기감정 나타내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것, 타인에 대한 느낌 표현, 문제의 예방 및 대책방법 등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③ 자아감각 발달법

자존감이 낮고 위축되어 있는 심신장애인의 자아 형성 프로그램으로 쓰이며 손도장, 발도장 찍기, 조소활동, 손 본뜨기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특히 섭식장애 환자나 신체 장애인에게는 효과적이다.

④ 감정차트 만들기

도화지에 몇 개의 칸을 구분하고 최근의 감정을 그리거나 색종이로 나타내게 한다. 칸 없이 한 장의 종이에도 표현할 수 있고 스펙트럼 형태의 띠로도 표현할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한 후에 모든 인간을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⑤ 집단만다라 벽화그리기법

집단속의 자기이해, 집단이해, 협동심 등을 기른다. 특히 벽화는 협동화를 제작할 때 소집단이 책상위에서 그리는 것보다 거부감이 적고 역동성을 더 잘 나타내 준다.

⑥ 역할 교환법

채색이나 꼴라쥬, 난화, 그림그리기 등에서 내담자와 치료자가 서로 번갈아 가며 작품을 제작한다. 한 장의 종이에 적당한 선을 그어 나누어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라포형성이나 거부감 감소, 흥미유발, 촉진 등에 효과적이다.

⑦ 갈겨 그리기법

내담자에게 싸인펜을 주어 손을 직접 갈겨 그려서 선을 따라가게 한 후 ‘어떻게 보이는가’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한 후 채색시킨다. 내담자와 치료자가 갈겨 그리기를 하면 내담자 관계의 동력을 더욱 강하게 한다.

⑧ 그림 완성법

소정의 용지에 기호가 그려져 있는 8개의 정방형을 제시하고 그 기호를 사용해서 그림을 완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유아나 성인, 정상적인 사람, 정신질환자 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그린 순서를 적고 무엇을 그렸는지를 해석하게 한다. 미술치료 과정이나 초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거부감이나 저항, 공포를 제거할 수 있다.

⑨ 자기집 평면도 그리기

어린 시절에 자기가 살았던 집의 평면도를 그려서 가장 무서웠던 곳, 비밀 장소, 누구와 함께 살았는가 등을 설명하여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자기에

게 영향을 미친 사람, 성격의 형성 등을 발견하고 부적응 행동에 대한 재 결단을 하여 새로운 각본을 형성하게 한다.

⑩ 과거 · 현재 · 미래 그리기

내담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끌라쥬를 통해 나타내게 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자아개념형성 프로그램이다.

⑪ 조소 활동법

점토의 질감과 유동성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감각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기법이다. 점토로 인물상을 만들거나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게 하여 해석하게 한다. 묽은 점토는 수채물감과 같이 액체도구로서 언어화가 결핍된 내담자에게 유용하며 과도한 언어화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감각적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특히, 대상관계가 부족한 내담자의 치료에도 유용하다는 보고가 있다.

4). 아동미술치료사의 자세

미술치료의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그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임상을 겸비한 미술치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써, 미술을 통한 심리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미술치료사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첫째, 아동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들의 내면세계 그 자체를 이해하며 아동의 사고, 감정, 충동을 수용하고 그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동을 좋아하는 것은 단지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단계에 이르도록 해 준다. 사랑과 미움, 협동과 파괴의 원초적 충동들은 미술을 통해 강하게 표출 될 수 있으나 치료자가 다루기는 어렵다. 강한 감정의 순간들은 행동하려는 충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동치료자가 다루어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즉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술용구, 치료실,

치료자를 거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동은 그러한 충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평온하고 안정된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충동을 수용할 수 있는 애정적인 치료자만이 아동에게 진정한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장과 치료과정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가짐과 일관성 있는 치료관계를 통하여 아동에게 안정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선천적으로 의존적인 아동은 안전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자가 위기 상황에서 수용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능력과 치료과정에 대해 진심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아동과의 치료관계를 유지하여 아동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안정성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치료자여야 한다. 놀이 치료자가 미술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처럼 미술치료자도 음악, 드라마, 문학작품 혹은 운동으로 표현하는 아동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동의 언어기술이 성인의 언어기술만큼 고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비언어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동작, 몸짓, 심상 그리고 소리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아동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넷째, 치료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칭찬이나 격려, 지지, 통제 등을 적절한 시기에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아동의 그림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아동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지만 작품에 대해 지나치게 칭찬하면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칭찬은 아주 무뚝뚝하고 도전적인 아동들까지도 치료자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아동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경우와 치료자와 아동과의 관계가 가학적-파학적(sado-masochistic)인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장 원초적인 그림과 환상을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조잡한 충동을 칭찬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공격성을 조장하는 것은 그것을 억압하는 만큼이나 나쁘다. 반면 지나친 제한은 아주 없는 것만큼이나 해로

운 것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치료의 과학적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어떤 치료도 과학적인 이론이나 미술활동 중 하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최선의 치료형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하는 것이다. 창조적인 사고와 미술활동을 통해 아동 미술치료자는 아주 사려 깊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예술성과 자발성이 함양된다. 아동을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돋기 위해서는 인지와 정서 모두를 고려해야만 한다.

여섯째, 치료자는 미술활동을 주의 깊고 기술적으로 사용하여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을 이해해야한다. 장애 아동에게 미술치료를 하려면 그들의 미술작품뿐 아니라, 그들의 작업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미술치료자는 아동의 정서와 개성을 항상 존중하고 아동자체에 대해 경외감과 겸손함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일곱째, 치료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아동과 미술에 대한 존중감을 지녀야 한다. 치료자가 부모를 치료에 개입시키는 것은 문제 행동을 완화시키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를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더불어 치료자는 자신의 충동을 자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반면에 아동의 충동과 저항을 존중해야 한다.

치료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한 치료 목적에 따라서 미술 치료자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미술치료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치료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사는 신중하게 이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고 잘 알고 있어야하며 항상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창조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스스로의 치료적 경험과 타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치료적 자질은 매우 중요한 치료자의 조건이라고 하겠다.¹²⁾

3.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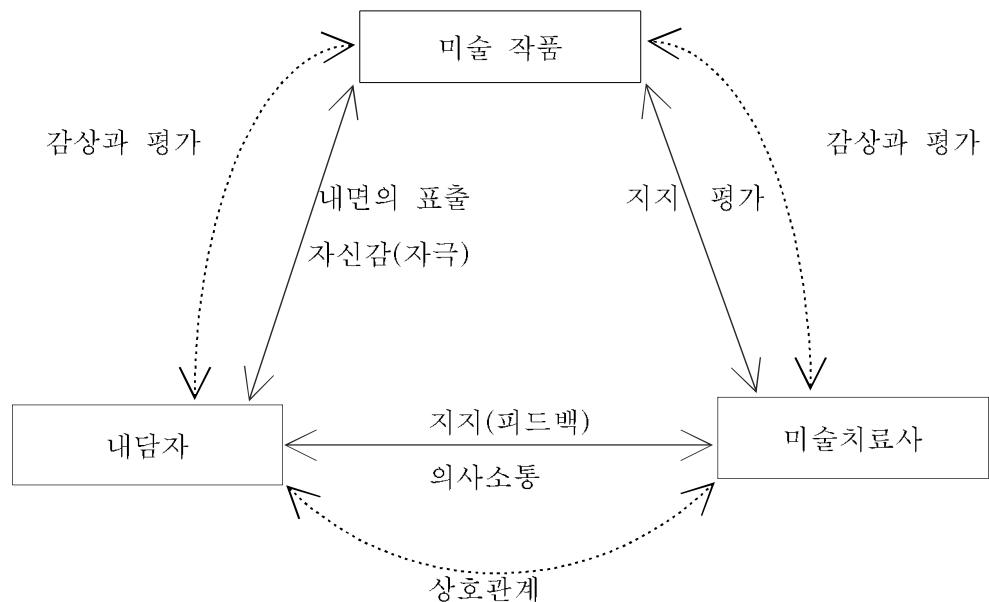
12) 양은진, “학교교육에 미술심리치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05), pp.17-21

1). 미술활동을 통한 내담자와 치료자의 상호관계

미술활동은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의사소통이란 정보들의 전달이며 정보들의 원활한 소통은 타인과의 응집력을 유발하여 상호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다.¹³⁾ 즉, 내담자의 표현활동을 통하여 치료사는 내담자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으로 내담자와 치료자는 믿음을 기분으로 한 신뢰성을 갖게 된다. 미술작품을 통하여 내담자는 그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하여 자기감정과의 교류와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소통과 상호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표3과 같다.

<표3> 미술활동을 통한 상호관계¹⁴⁾



치료사는 내담자가 더욱 편안하고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피드

13) 정명주 외, 「표현에서 치유로 아동미술치료, 이렇게하세요」, (형설출판사, 2006), p.19

14) 상계서, p.20

백)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조절이 가능한 미술활동은 자신감, 성취감,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 미술작품을 매개체로 한 내담자와 미술치료사 간의 주관적인 감상과 평가는 자연스런 의사소통을 유발하면서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작품과 활동을 통해 그의 내면을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연속적인 교류로 내담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아 더 나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면 내담자의 미술활동의 어떠한 점이 심리치료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미술치료를 어떻게 미술교육에 적용시키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기 위해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미술교육에 미술치료의 적용 가능성에 있다고 생각되는 미술활동의 심리치료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형 활동에 의한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 조형은 ‘재료의 인간의 행위나 시도가 작용하여 가시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조형능력은 미(美)라는 형이상학을 가시화시키고 만질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정신을 물질화 시키는 능력이다. 이러한 조형활동은 공상이나 현실에서 경험하고 싶은 개인적 표현욕구가 제작활동을 통하여 표출됨으로써 순수한 개인적 만족감 및 쾌감을 가져다주어 심리적 안정감과 대인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둘째, 창의적 표현에 의한 잠재능력을 실현하게 한다. 인간의 창작활동은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는 예술적 가치를 더하게 하는 창의적 사고과정이 일어난다. 이러한 창의성은 무의식과정에서 일어나며 제 채의 선택부터 작품의 완성까지 계속해서 발휘된다.

셋째, 감성발견에 의한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미술활동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감정을 해소하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감정이 정화, 순화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이것은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속 감정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감정을 정화시키며 은유적인 상징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표현 할 경우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한다.

넷째, 무의식 표현에 의한 자기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프로이드는 꿈과 감정, 사고가 무의식적인 시각적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고통스런 기억들이 완전히 잊혀 지지 않고 무의식에 남아서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영향력을 제거하지 못하면 정신적,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미술은 인간이 가지는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출하여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억제되었던 감정과 사고를 표출하여 치료적 효과를 얻게 된다.

다섯째, 자아표현에 의한 자아존중감을 증대시킨다. 자아(ego)는 인간이 자신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을 의식하는 주체로서,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한다. 자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아의 핵심을 자긍심, 즉 자아존중감으로 보는데 이런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자아관이 형성될 때 길러지며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자아존중감은 증가 된다¹⁵⁾고 했다. 미술활동은 작품을 제작하고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통해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내담자는 표현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자아성장을 하게 되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심리 치료적인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로웬펠드는 그의 저서 Creative and Mental Growth에서 창의적 표현과 정신적, 정서적 성장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나아가 미술교육을

15) 이수정,"미술치료 기법을 적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 교, 2008), pp.40-41

통한 특별한 기여로서 art education therapy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미술의 기능적이고 치료적인 접근으로 모든 아동의 잠재된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미술치료과정이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기표현의 조장, 독립성의 유연한 사고의 증진,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 등 창조적인 정신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¹⁶⁾ 창조적인 활동에 의한 자기표현과 치유는 미술교육에 자연스럽게 잠재되어온 내용으로, 이러한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미술치료를 미술교육에 적용시키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의 근원적인 공통점을 찾아보는데 있다.

미술표현의 잠재적인 역량은 창조적인 표현에 있으며 창조는 우주 자연의 섭리를 발견하여 이를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미술을 통한 인간의 지각작용에는 표현 주체가 대상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한 것뿐만 아니라, 평소 경험했던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미술교육의 중심을 이뤄온 표현활동은 이미지를 만드는 일에 그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 쪽으로 다가서는 행위라고 보여 진다.

내담자는 미술활동 속에서 언어만으로는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던 것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형태를 부여하는 일은 바로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미술치료의 장에 있어서도 미술교육 속에서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내부 세계의 연결고리로서의 미술활동이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롭게 상상하거나 이미지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미술교육에 있어서도 미술치료에 있어서도 불가결한 활동이며 바로 여기에 교육의 배후에 자리한 성장과 변화라는 목적, 치료의 배후에 있는 치유라는 목적의 공통점이 나타난다.¹⁷⁾

루빈(Rubin 1999)¹⁸⁾은 아동과 청소년의 미술치료에는 미술교육의 요소가

16) 이경원, 노옹(2004), “아동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조형교육 제23집, 한국조형교육학회, pp.146-147

17) 김향미, “미술교육에 있어서 미술치료적 관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조형교육 제 26호, 2005, pp.126-127

18) 주디트 루빈(Judith A. Rubin) 김진숙 옮김. 「미술치료학개론」, (학지사, 2006), PP.207-215

들어있으며, 여기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이차적 목적이 되고 치료가 일차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미술치료는 사람들이 창작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연히 교육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나 교육은 치료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위한 보조적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미술치료사가 미술 기법을 가르칠 때는 단순히 기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법으로 사람의 감정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게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승화를 경험하게 하며 또는 높은 자존감을 성취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가르친다는 것이다.

또한 미술교육도 치료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훌륭한 미술교사들은 넓고 유익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길러주고 성장을 증진시킨다. 미술은 긴장을 풀게 하고 규율에서 자유를 느끼게 하고 금단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표현하게 하고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가시화하고 말로 옮기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생각들을 표현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적인 힘을 내재하고 있다.¹⁹⁾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예술형태를 기본으로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 적용, 평가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미술교육은 인지, 정서, 운동, 협응력 등의 모든 영역의 통합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미적 능력의 합양도 인격적 발달만큼 중요하다. 미술치료는 미술의 미적 요소와 제작기술의 습득이 치료 목표에 뒤따라오는 종속적인 것으로서 작품의 결과보다는 작업과정을 통한 치료자와의 상호작용과 과정 자체에 비중을 두고 그로 인해 얻어진 작품이 아동에게 의미를 준다.²⁰⁾ 즉, 미술교육에서 미술교사는 미술에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결과를 중요시하는 하는 반면, 미술치료사는 치료에 목적을 두어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 결과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며 진단에 활용하고 그림에 나타

19) 상계서 P.96

20) 양은진, “학교교육에 미술심리치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05), P.27

난 내용을 의미화하고 도식화하여 평가하는 치료적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둘 다 미술을 도구로써 이용한다는 사실이며 공동의 목적으로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이 두 분야의 비슷하면서도 차별된 고유 영역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그 두 능력이 증폭되는 효과로 발전하여 양쪽 영역에 대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3). 학교교육에 미술치료의 필요성

학교 내 집단미술치료는 집단 따돌림, 학업, 신체상의 고민 등 발달과정 중에 수반하며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정서적 갈등을 갖고 있는 학령기, 청소년기 아동을 위해 고안된 비전통적인 중재도구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또래관계로 인해 혹은 최근 10년 동안 불거져 나온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는 가해, 피해아동, 또래관계를 맺기 어려운 아동, 기타 다양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이며 근대적인 중재 도구인 언어적 상담(개별상담, 소집단 상담)과 훈화를 통해 다루어 왔지만 결과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 원인에는 언어적 상담기법이 지닌 한계점과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지 못하는 교사의 인식부족 등 교육계에 만연한 획일성과 권위주의 때문이며 지나치게 성적을 중시하는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나 부모의 자라나는 아동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있다.²¹⁾

따라서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아동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 할 수 있게 해주는 미술활동이 더욱 유연한 상담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학교 미술치료²²⁾는 미국에서 발전했으며 그 시기가 1900년대 후반을 역사가 길지는 않다. 학교 미술치료는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인식

21) 이경원, “학생의 사회성 결여 현상에 따른 학교환경 내 집단미술치료 도입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8권 1호, 2004

22) 학교 미술치료(School Art Therapy)는 해외에서 이미 미술치료 내 독립적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으로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치료의 필요와 교육 과정에 나타나는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분석을 위해 발전되기 시작했다. 초기 학교 미술치료는 학교 내 프로그램의 상용에 실패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학 내 미술치료사 교육과정은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치료사들을 훈련하고 교육하였다. 이 당시에 미술 치료사들과 학교간의 연결 고리는 없었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치료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미술치료사는 학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일하도록 준비되어질 뿐이었다. 그러나 학교 미술치료의 특별한 대학원 교육과정이 학교 미술치료의 근본적인 육성을 위해 만들어 졌다. 이 과정은 미술치료의 의학적 환경에서 교육적인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건강과 여러 임상 연구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어 미약했던 학교 미술치료사에 대한 자리가 잡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 미술치료사를 위한 정규 대학원과 대학교 과정이 생겨났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학교 미술치료 교육은 집단미술치료의 형태로 학교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수년 동안 학교 미술치료는 영국과 미국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아 몇몇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까지 진행되게 되었다.²³⁾

우리나라에서의 미술치료는 도입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992년 ‘미술치료학회(Korea Art Therapy)’가 결성되어 교육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 등록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술치료사 교육과정이 학술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몇몇 미술치료학회의 본격적인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대학과 연구소, 미술치료단체, 문화센터,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미술치료에 대한 강좌들이 점점 늘어가는 실정이고 전문미술치료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미술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교육 과정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료과정은 어느 정도 특수 치료의 기반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해외의 치료과정과는 달리 미술치료사 혼자 모든 것을 맡아 독

23) Janet Bush, 『The Handbook of Art Therapy』, (1997) p.8

립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부모나 학교 직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회의나 워크숍 등이 없다. 때문에 아직 미술치료가 학교사회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미술치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치료사 혼자가 하는 치료가 아닌 함께하는 치료가 진행²⁴⁾되어야 할 것이다.

24) 길은영,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미술치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6), pp.39-40

III. 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및 결과

1.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미술교육 적용과정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J미술원’의 원생 중 8세부터 11세까지의 20명의 아동으로 구성하였고, 주 1, 2회 60분씩의 시간을 기본으로 미술치료는 1차 총 8회를 2006년 8월 14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2차 총 8회를 2006년 11월 3일부터 2006년 12월 22일까지, 3차 총 8회를 2007년 1월 5일부터 2007년 2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절차는 초기(1-2회), 탐색(3-4회), 실행(5-6회), 종결(7-8회)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활동 내용은 개별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공동 활동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된 교육안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술치료기법을 미술활동에 대입시켜서 실시하였다.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프로그램을 기간의 차이를 두고 1차, 2차, 3차에 걸쳐 실시하여 회기별, 차시별, 개인별 아동의 행동을 관찰 기록하고 변화를 고찰하여 본 연구자가 실시한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의 효과를 질적 분석 하였다.

2.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

본 연구에 활용된 프로그램은 미술치료 연수회자료집(1994)과 표현에서 치유로 아동미술치료, 이렇게 하세요(정명주 외, 2006)중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아동의 자발성과 흥미를 반영하여 본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전 과정은 4단계로 하고 단계별 목표 및 회기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표4>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단계	목 표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의 목표와 규범을 이해하고 확인하기 자기표현시도, 매체탐색 및 미술활동에 접근 자기인식 및 진단하기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망설임, 긴장, 저항, 불안 완화하기 개인의 성격, 능력, 한계 등을 인식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찰하기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의 생각,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감을 향상하기 집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표현능력과 상호협동능력 키우기 집단 내에서의 문제를 바람직한 행동방안으로 모색하여 태도, 행동양식을 일상생활에 까지 확대하기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심과 사회성 향상으로 공동체의미 이해하기 집단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을 찾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자아상을 새롭게 하기

<표5>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 제	내 용	목 적
초기	1회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클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각자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자신을 소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내에서의 규칙 준수와 매체 탐색. 자기표현 시도
	2회기	*KHTP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집, 나무를 그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표현 시도, 매체 탐색. 미술활동에 접근

탐색	3회기	*나의 모습 (꼴라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화지의 앞면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도화지의 뒷면에는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잡지를 오려 붙여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긍정감 향상.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기
	4회기	*명화 비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화를 감상하고 자신의 감정을 원작을 바꾸어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심상 이해 자기 표현력 향상
실행	5회기	*15소년 표류기 의 주인공이 된 다면...(협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관계 기능향상 및 친밀감 증진 상상력, 창의력 향상
	6회기	*서로 다른 두 얼굴 (가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좋아하는 얼굴 내가 싫어하는 얼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 자아상 확립, 타인 이해
종결	7회기	*나를 응원해요! (깃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장점이나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표현으로 깃발을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긍정감 향상, 자기표현력 향상
	8회기	*선물주고받기 (손 본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들과 ‘주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은 선물을 손 본뜨기 하여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감정 인식 정서표현력 증진 사회성 향상

1). 회기별 교수-학습 지도안

가. 점토를 활용한 미술프로그램

본 수업은 다양한 색의 클레이를 준비해 아동의 흥미를 자극시켜 미술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였으며, 부드러운 점토를 가지고 다양하게 촉감을 느껴봄으로써 감정의 이완과 안정을 주어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제 1 회기 교수-학습 지도안

<표6>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활동명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클레이)
활동목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그 이유를 발표하여 자신을 소개한다.
학습준비물	점핑클레이, 이쑤시개, 점토 칼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 소개와 미술활동 과정 중 지켜야할 규칙과 재료의 특징, 사용 방법 등을 이야기한다.동기유발-여러 가지 색의 클레이 중 자신이 선택한 클레이를 만져보며 각자 촉감을 이야기한다.	10분	미술실 내에서의 규칙과 주의사항을 아동들과 이야기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다랗게, 둥글게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본다.각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를 유도하되, 다른 아

	<p>보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의 사용방법과 다른 색의 클레이를 붙이거나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에 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아동이 없도록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작품을 아동 개개인이 직접 설명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 후, 자신의 작품을 소중히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작품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적 활용

아동은 점토를 만져봄으로써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며 감정이 이완되고 소근육 발달에 효과적이었다. 점토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자기 표현을 시도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었고, 재료의 색을 혼합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색의 혼합과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게 되었다. 완성된 작품은 아동으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고 질감, 양감, 운동감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 진단적 도구로서의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프로그램

본 수업은 아동의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미술심리치료 검사의 하나로 진단도구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아동의 사전·사후 검사로도 유용한 수업이다. 연필과 화지를 준비하여 집, 나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을 그리도록 지시하고 아동 개개인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기록하여 그림을 완성하기까지의 특성을 파악한다.

① 제 2 회기 교수-학습 지도안

<표7> KHTP

활동명	KHTP(동적 집, 나무, 사람 그림)		
활동목표	운동성이 가미된 집, 나무, 사람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학습준비물	A4용지, 4B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색연필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를 나누고 교사는 아동에게 연필로 A4용지에 집, 나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도록 지시한다. · 그림을 그릴 때는 일부러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그리던 대로 편안하게 그릴 수 있도록 지시한다. · 사람을 그릴 때는 만화형식의 표현과 막대인간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장난스럽게 표현하거나 주변 아동의 그림을 보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그리기를 시작할 때 교사는 아동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 기록해둔다. -그림을 그리는 아동이 성실하게 그렸는지, 대충 그렸는지? -즐거운 기분으로 그리는지, 긴장하여 그리는지? -완성하는데 시간이 짧은지, 오래 걸리는지? -어떠한 순서로 그림을 완성하는지? · 교사는 그림을 완성한 아동에게 그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주변 친구들의 그림을 보고 무조건 따라 그리려는 아동이 없도록 주의시킨다.

	림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여 기록해둔다.		
정리	· 아동 각자의 주변을 정리하도록 하고 마무리 한다.	10분	· 정리정돈의 유무를 관찰하여 기록해둔다.

② 교육적 활용

집, 나무, 사람의 서로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는 그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각적 은유를 반영하고 있으며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²⁵⁾ 아동이 KHTP를 그리는 동안의 행동관찰을 통해서 아동의 심리상태와 성향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 작품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

- 누구의 집인가요?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당신이 살고 싶은 집입니까?
-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 나무는 살아 있습니까? 나무는 마음에 듭니까?

일반적으로 KHTP에 대한 분석에서 집은 우리의 생활의 물리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나무는 생활과 자기성장을, 사람은 감독자,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이 그림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는 것으로 아래에 KHTP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나열해 보았다.

▶ KHTP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그림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살펴본다.
- 집, 나무, 사람 각각의 그림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 KHTP에서 가장 큰 영향력(크기, 운동, 압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집인가? 나무인가? 사람인가?

25) 권준범, “미술심리치료검사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2), p.41

-KHTP에서의 거리와 배치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의 양식을 봐야한다.

다. 꿀라쥬를 활용한 미술프로그램

본 수업은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아동에게도 별 거부감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잡지 속의 다양한 사진을 오려 붙여 표현함으로써 연상적인 효과를 내어 아동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① 제 3 회기 교수-학습 지도안

<표8> 나의 모습

활동명	나의 모습(꼴라쥬)		
활동목표	꼴라쥬로 자신의 모습을 나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표현해보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타인의 감정도 이해한다.		
학습준비물	잡지, 풀, 가위, 도화지, 싸인펜, 색연필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사를 나누고 교사는 아동에게 재료를 나누어 준 후 꿀라쥬에 대해 설명한다.동기유발-아동에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도록 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잡지책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잡지책에서 필요한 사진을 찾아 도화지 앞면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뒷면에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료가 너무 산만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중간에 정리를

	<p>의 모습'을 표현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교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 아동이 잡지책에서 찾지 못한 이미지는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해가며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작품을 아동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 각자의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를 꺼려하는 아동에게는 따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적 활용

재료를 선택하고 찢고 오리는 과정에서 아동은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자신의 마음이 치료가 되는 효과를 경험하였고 그림에 자신이 없는 아동도 사진매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

라. 명화를 활용한 미술프로그램

본 수업은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을 이야기하며 작품 감상시의 규칙을 알고 작품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

① 제 4회기 교수-학습 지도안

<표9> 명화 비틀기

활동명	명화 비틀기
활동목표	명화를 감상하고 느껴지는 감정을 나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본다.

학습준비물	명화 복사본(아동 개인별), 풀, 가위, 색채도구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를 나누고 명화 복사본을 각자 나누어 준 후 감상할 시간을 갖는다. 동기유발-명화를 감상하고 난 소감을 돌아가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명화에 관한 정보를 아동에게 소개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화 복사본을 자르거나 색칠을 더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여 표현해 보도록 한다. 아동이 자신의 느낌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되, 너무 장난스런 행동은 교사가 제지하여 안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아동이 작품에 임하는 자세를 관찰하여 기록해둔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구성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아동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아동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할 때에는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작품 감상 시의 규칙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적 활용

명화를 감상하고 느낌을 이야기하며 자기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롭게 명화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화면구성능력과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다. 재구성하여 표현된 작품은 아동의 심리를 반영하는 자료가 되었다.

마. 협동화를 활용한 미술프로그램

본 수업은 협동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동안 상호교류를 하게 되어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나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상호간에 의견 충돌과 협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① 제 5회기 교수-학습 지도안

<표10> 15소년 표류기의 주인공이 된다면...

활동명	15소년 표류기의 주인공이 된다면...(협동화)		
활동목표	친구들과 의논하여 무인도에서의 생활을 협동하여 그림으로 완성한다.		
학습준비물	전지, 4B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파스텔, 싸인펜, 매직펜 등.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를 나누고 협동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한 후 팀을 나누어 협동화를 그린다고 이야기해준다. · 각 팀은 자유롭게 결성해 보도록 지시한다. · 동기유발-각 팀에 2절지를 나누어 준 후 만일 무인도에 표류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서로 의논하여 그림으로 표현하고 완성할 것을 지시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팀을 정하지 못하는 아동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완성할 것을 당부한다. · 원하는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단적으로 다른 아동의 표현을 제지하는 아동에게는 협

	<p>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협동화에 임하는 아동의 행동을 관찰 기록한다. 		동화의 의미를 일러준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아동 개개인에게 자신이 표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주변정리를 하도록 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개인이 작품 설명을 할 때 주의 깊게 듣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적 활용

협동화는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고 집단 내에서의 의사결정 능력과 공동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상상하여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도 발전하였다.

바. 가면 만들기를 활용한 미술프로그램

본 수업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 봄으로써 내면 깊숙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아동은 표출된 감정의 표현으로 감정이 정화됨을 느낄 수 있다.

① 제 6회기 교수-학습 지도안

<표11> 서로 다른 두 얼굴

활동명	서로 다른 두 얼굴(가면 만들기)
활동목표	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본다.

학습준비물	여러 가지색 도화지, 색채도구, 다양한 꾸미기 재료 등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동기유발-자신의 다양한 감정표현 중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하는 시간에 산만하지 않도록 주의집중을 유도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이 느끼는 ‘나의 긍정적인 얼굴’과 버리고 싶은 ‘부정적인 얼굴’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자신의 얼굴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아동에게는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부족한 재료는 찾아서 충족시켜 준다.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아동의 지나치게 장난스런 수업태도를 제지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가면 중 ‘내가 좋아하는 얼굴’, 과 ‘내가 싫어하는 얼굴’ 가면을 쓰고 각각의 가면을 썼을 때의 감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주변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면을 쓰기 싫어하는 아동에게는 강요하지 않는다.

② 교육적 활용

아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얼굴’과 ‘싫어하는 얼굴’을 표현해 봄으로써 자신의

내면 속 감정을 표출 할 수 있었고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얼굴로 바꿔어 봄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을 찾을 수 있었다.

사. 깃발 만들기를 활용한 미술프로그램

본 수업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봄으로써 자기긍정감 갖게 하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자기표현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① 제 7회기 교수-학습 지도안

<표12> 나를 응원해요!

활동명	나를 응원해요!(깃발 만들기)		
활동목표	자신의 장점을 찾아 깃발에 표현하고 자기 긍정감을 갖는다.		
학습준비물	여러 가지색 도화지, 본드, 수수깡, 다양한 꾸밈재료 등.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사를 나누고 다양한 모양의 깃발과 깃발의 쓰임새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동기유발-나를 상징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자신 있거나 잘하는 것 등 자신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신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아동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여러 가지색의 도화지 중 자신이 원하는 도화지 색을 선택하도록 한다.깃발의 모양은 아동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여 만들도록 한다.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사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되 도움을 요청하는 아동에게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해준다.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정리	· 완성된 깃발을 직접 흔들어 보도록 한 후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 자신의 자리를 정리정돈 하도록 하고 가지고 가기를 희망하는 아동에게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10분	· 교사는 아동의 감정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 기록한다.

② 교육적 활용

아동은 깃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표현함으로 성취감 희망적인 감정을 습득할 수 있었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표현력과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다.

아. 손 본뜨기를 활용한 미술프로그램

본 수업은 손 본뜨기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상호 간의 교류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① 제 8회기 교수-학습 지도안

<표13> 선물 주고받기

활동명	선물 주고받기(손 본뜨기)
활동목표	친구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과 '주고 싶은 선물'을 하여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한다.
학습준비물	도화지, 색채도구, 꾸밈재료 등.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를 나누고 팀원을 정하도록 한다. 동기유발-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은 선물’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롭게 팀원을 정하도록 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으로 사서 줄 수 있는 것만이 선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하는 선물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원하는 아동 순서대로 손 본뜨기를 한다. 오른손 본뜨기를 하여 ‘주고 싶은 선물’을 하고 왼손 본뜨기를 하여 ‘받고 싶은 선물’을 표현하도록 한다. 아동 개개인의 손 본뜨기를 한 도화지가 빠짐없이 돌아가며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너무 장난스런 아동의 수업태도를 제지하여 안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에게 돌아온 손 본뜨기의 선물을 확인한다. 자신의 자리를 정리정돈 하도록 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아동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 기록한다.

② 교육적 활용

아동은 자신의 손을 본 떠 표현해봄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아감각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팀원이 주고받는 선물 표현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교류하여 대인관계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차시별 변화 특성

<표14> 1회기

활동명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클레이)
수업 내용	
1차	<p>본 수업은 다양한 색의 클레이를 준비하여 촉감을 느껴봄으로써 감정의 이완과 안정을 주어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찰흙은 자칫 더럽다고 만지기를 거부하는 아동도 있으므로 첫 수업으로 대다수의 아동이 선호하는 여러 가지색의 클레이를 준비하였다. “클레이를 사용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아동은 사용해 본적 있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색의 클레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색을 먼저 한 가지 선택하게 하였다. 한 아동이 4~5가지 색을 자신의 앞으로 쓸어 모으며 “난 이렇게 다 마음에 들어요”라고 하자 다른 아동들도 클레이를 자신의 앞으로 모조리 가져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두 공평하게 한 가지 색만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만들면서 필요한 다른 색의 클레이를 섞거나 꾸미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였다. 모두 클레이를 다시 가운데로 모아놓고 한 가지 색만 선택하였다. 클레이를 꺼내어 촉감을 자유롭게 느껴보도록 하고 촉감에 대해 한마디씩 이야기해 보기로 하니 “말랑말랑해요”, “부드러워요”, “촉촉해”, “끈적거려요”등으로 말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끈적거려요”라고 말한 아동은 “싫다”고 말하며 하기 싫다고 하였다. 손에 클레이가 달라붙은 아동에게 클레이를 계속 비비고 만지면 떼어진다고 알려주고 떼는 걸 도와주니 다시 웃으며 자신이 만졌던 색은 피하고 다른 색을 선택하여 작업을 계속</p>

하였다. 촉감을 충분히 느끼게 한 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만들게 하였는데 작업 중에 대부분의 아동이 즐거운 표정으로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옆의 친구가 만드는 것을 따라서 만드는 아동도 관찰되었고 작업도중 계속 옆의 친구와 키득키득 웃으며 작품을 만드는 아동도 관찰되었다. 모든 아동에게 완성한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아동들은 주로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 운동경기용품, 음식 등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소개 직전에 작품을 뭉개어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 대체하는 아동도 있었고 부끄러워 작품 소개를 하지 못하는 아동도 있었다. 작품소개를 못하는 아동에게는 교사가 질문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작품소개를 모두 끝내고 자신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였다.



<그림1-1>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림1-2>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한 아동이 준비된 클레이를 보고는 “아싸”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얼른 먼저 선택하자 다른 아이들도 일제히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아동들은 각자 한 가지색만을 선택하여 자신의 앞자리에 놓았다.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클레이를 꺼내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1차시보다는 더 능숙하게 자신의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아동이 다양한 색을 붙이거나 섞어보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세심한 표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아동이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라고 물어보아서 “그래도 된다”고 대답해 주니 다른 아동들도 “나도 많이 만들어야지”하며 다른 작품

들도 만들기 시작했다. 옆 친구를 보면 웃거나 혼잣말을 많이 하며 작업을 하였던 아동도 여전히 혼잣말을 많이 하지만 옆 친구에게 장난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진지하게 자신의 작업을 하였다. 평소 건강한 체격과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다른 아동들에게 부러움을 받던 아동이 “난 닌텐도를 좋아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못 만들겠어”라며 혼잣말로 말하자 주변의 다른 남자 아동도 “나도”라고 말만 할 뿐 닌텐도를 만든 아동은 없었다. 아동들에게서 음식을 만든 작품이 많이 눈에 띄었다. 아동들은 대부분 각자의 작품을 가지고 가고 싶어 했고, 그러도록 하였다.



<그림1-3>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림1-4>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준비된 클레이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그 말에 평소에 말수가 적었던 한 아동이 “아! 나는 이제 만들 것이 없는 데...”라며 혼잣말로 말하자 이 말은 들은 주변의 몇몇 아동들도 “나는 뭐 만들지?”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듯 했다. 그래서 다시 아동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물건도 있지만 사람, 동물, 음식, 교과 과목, 운동경기, 식물, 곤충, 음악 등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 말에 아동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하였고 재료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동들은 각자 자신이 필요한 클레이 색을 필요한 만큼 떼어내고 나머지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해 놓는 모습도 나타났다. 재료에 욕심을 보였던 아동도 오늘은 별다른 질문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필요한 재

	<p>료의 색과 양을 조절해가며 표현하였다. 2차시까지는 주로 동물, 음식, 사람 등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는데 3차기에 다른 차시에서 볼 수 없었던 글자와 평면적 표현도 나타났다. 아동들은 전체적으로 1차, 2차시보다는 작품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10분정도 빨랐다. 3차시에 완성된 작품은 음식, 동물, 외계인, 이상한 생명체, 글자 등 다양한 작품들이 표현되었다.</p>
	  <p><그림1-5>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그림1-6>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p>

<표15> 2회기

활동명	K H T P
수업 내용	
1차	아동들에게 4B연필과 A4용지를 나누어 주고 집, 나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도록 지시하였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일부러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그리던 대로 편안하게 그리고 사람을 그릴 때는 만화형식의 표현과 막대인간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지 않

도록 당부했다. 대부분의 아동은 집, 나무, 사람을 그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적었으며, 몇몇 아동들이 사람을 여러 명 그려도 되는지 물어보아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아동은 대부분 집을 먼저 그리기 시작했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그런 그림을 옆 친구에게 보여주며 키득키득 웃고 장난스럽게 표현하는 아동도 있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한 아동은 손으로 자신의 그림을 가리고 주변 친구들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매우 진한 필압으로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림을 연필로 완성하기까지는 10분정도에 완성한 아동 4명, 20분 정도에 완성한 아동 8명, 30분 정도에 완성한 아동 6명, 40분 이상 경과한 아동은 2명 이었다. 일찍 완성한 아동에게는 색칠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평소 그림에 자신있어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작품을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고 내성적인 아동에게서는 시작하기까지 머뭇거리는 시간이 5분 이상 소요되기도 하였다. 9세 남자 아동들에게서 장난스런 표현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림2-1> KH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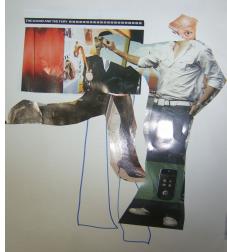
<그림2-2> KHTP

2차 아동들은 작품완성 속도가 1차시보다 빨라졌고 남자 아동에게서는 주로 운동하는 모습이나 싸움하는 사람이 표현되었다. 여자 아동에게서는 주로 집 근처에서 쉬거나 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표현하였고 장소는 주로 우리 집 근처 혹은 내가 모르는 곳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림2-3> KHTP	<그림2-4> KHTP
3차	<p>1차, 2차시에 행한 KHTP에서 대부분의 아동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표현한 반면 3차시에서는 아동들의 표현이 다양해졌다. 그 날의 기분을 그림에 대입하여 표현한 아동도 있었다.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듯 보였다. 완성된 그림에 대한 질문에서도 1차, 2차시에서 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p>  	<p><그림2-5> KHTP</p> <p><그림2-6> KHTP</p>
전체 차시 고찰	<p>1차시에 그리기에 거부감이 있거나 내성적인 아동에게서 주로 작품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었고 표현하는 데에도 지우개 사용이 빈번했으며 손으로 가리면서 그리는 등의 행동변화가 두드러졌다. 작품의 표현도 주로 내가 경험한 것 위주의 표현이 많았다. 2차시에는 남자 아동들에게서 운동하는 모습이나 싸움하는 모습의 표현 등, 힘에 관련된 표현이 두드러졌다. 3차시에는 1차, 2차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림도 나타났다. 아동들은 반복적으로 KHTP를 표현하는 동안 주변을 의식했던 경직된 표현에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p>	

<표16> 3회기

활동명	나의 모습
	수업내용
1차	<p>아동들에게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오늘은 잡지책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사진을 오려 붙여 표현하는 끌라쥬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끌라쥬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10-11세 아동들은 “알고 있다”고 하였고 8-9세 아동들은 어려워하는 듯 보여 다시 예시작품을 들어 설명해 주었다. 잡지책에서 필요한 사진을 찾아 도화지 앞면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뒷면에는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게 하였다. 8-9세 아동들은 잡지책을 보면서 주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산만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아동들은 잡지책을 넘겨보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자신에 대해 표현할 때에는 큰 사진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찢어 간단히 표현하였다. 아동이 잡지책에서 찾지 못한 이미지는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었다. 아동들은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의 표현에서 자신의 장점이나 특성을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사진으로 표현하였고,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3-1> 나의 모습</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3-2> 나의 모습</p> </div> </div>

	<p>이제 아동들은 꿀라쥬 기법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있었고 평소 장난끼가 많던 아동은 꿀라쥬 수업을 한다는 말에 매우 좋아하였다. 아동들은 잡지책에서 원하는 사진을 고르기 시작했고 1차시보다는 사진을 고르고 선택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남자 아동들은 주로 잡지책의 사진에서 휴대폰, 카메라, 옷, 신발 등의 사진을 찾는다는 말을 하며 옆 친구에게 “거기 있어”라고 물어보며 찾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여자 아동들은 주로 잡지 사진에서 예쁘고 비싼 옷을 입은 모델사진에 관심을 보였고, 재료에 욕심이 많던 아동은 “이 옷은 65만원이나 해! 이 옷으로 해야지!”하며 자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전체적으로 아동들은 1차시보다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p>
2차	 

<그림3-3> 나의 모습

<그림3-4> 나의 모습

	<p>아동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자신의 장점이나 특징을 찾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어떤 아동은 자신은 공부를 잘 하니까 다른 신체 부분에 비해 큰 얼굴에 커다란 안경을 쓴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였고 ‘남이 보는 나의 모습’에서는 기다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사진에 펭귄 발 사진을 오려붙여 표현해 주었다. 작품 설명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공부를 잘해서...”라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리가 길고 귀여워 보이니까”라고 하였다. 또래보다</p>
3차	

건강한 체격의 한 아동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스포츠 점퍼를 입은 모습의 남자로 표현하고 아래에 커다란 술 사진을 오려붙여 자신을 표현했다. 작품설명에서 자신은 운동을 좋아해서 점퍼에 다리가 튼튼한 사진을 붙였고, 술은 “그냥”이라고 말하였다. ‘남이 보는 나의 모습’에서는 유난히 자고 왜소한 체격의 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했는데 작품설명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림3-5> 나의 모습



<그림3-6> 나의 모습

1차시에 아동들은 잡지사진을 고르고 찢고 오리면서 재료탐색에 대한 시간이 길었고, 사진을 선택할 때 자신이 찾는 이미지의 사진을 전체 차시 고찰 선택해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2차시에서 사진을 신체 부위별로 선택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합성이다”라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표현하는 아동도 관찰되었다. 3차시에서 아동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낸 작품이 많이 관찰되었다.

<표17> 4회기

활동명	명화 비틀기
	수업 내용
1차	아동들에게 ‘뭉크’의 ‘다리위의 소녀들’ 작품 복사본을 각자 나누어 준 후 감상할 시간을 주었다. 명화를 감상하고 난 소감을 돌아가며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은 “어두워요”, “슬퍼 보여요”, “이상해요”, “다리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이 작품을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명화 복사본을 자르거나 색칠을 더하여 도화지에 새롭게 재구성 해 보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동들은 사람그림만 오려 자신의 화지에 붙였고 남자 아동들은 소녀의 사진을 오려 괴롭히는 모습으로 표현 하는 등 장난스러운 표현이 많이 발견되었다. 여자아동들은 배경을 달리하거나 말 주머니를 그려 만화식으로 표현한 작품이 관찰되었다. 작품 설명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조숙한 11세 여자아동은 배경이 어두워서 마음에 안 들었다며 다리위에 소녀들 사진만 오려서 석양을 감상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해 주었다. 아동들은 자신이 재구성한 작품이 원작보다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림4-1> 명화 비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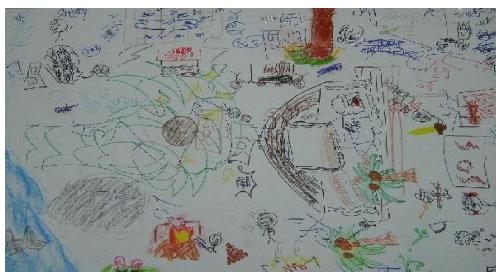


<그림4-2> 명화 비틀기

2차 한 아동이 “이번에 보니 그림이 저번보다는 밝아 보이네”라고 말하였다. 왜 그런 것 같은지 물어보니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고 대답했다. 아동들은 이번에도 주로 사람만 오려 도화지에 붙이기 시작했다. 운동을 매우 좋아한다던 아동은 축구장 풍경으로 바꾸어 표현해주고 어떤 아동은 소녀그림을 그물에 가두고 한 아이가 온갖 폭탄으로 공격하는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아동들은 2차시에는 오려붙인 사진 주변에 더 많은 그림을 그려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남자 아동들은 소녀사진을 오려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았고 여자아동들은 주변의 일상생활이나 대화

	<p>하는 만화식 표현이 많았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4-3> 명화 비틀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4-4> 명화 비틀기</p> </div> </div>
3차	<p>2차시처럼 3차시에서도 소녀그림을 오려 붙여 공격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거나 오늘의 기분이나 날씨 등을 대입시켜 작품에 표현하는 그림들이 많이 관찰되었다. 어떤 아동은 원작의 그림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고 슬퍼보여서 재밌고 즐거워 보일 수 있도록 바꾸어 표현하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4-5> 명화 비틀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4-6> 명화 비틀기</p> </div> </div>
전체 차시 고찰	<p>1차시에 여자 아동들에게서 주로 원작의 어두운 배경에 대한 색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졌고, 2차시에는 여자아동 남자아동 모두에게서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 많이 관찰되었다. 3차시에서는 2차시와 비슷하게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 많이 관찰되었는데 원작의 주인공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고 싶다고 이야기한 아동에게서 긍정적 감정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었다.</p>

<표18> 5회기

활동명	15소년 표류기의 주인공이 된다면...(협동화)
수업 내용	
1차	<p>각각 팀원을 자유롭게 정하게 한 뒤 각 팀에 2절지 1장과 여러 가지 색채도구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협동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고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서로 의논하며 완성하라고 일러주었다. 아동들에게 “폭풍을 만나 무인도에 불시착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표현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아동들은 각자 자기 앞의 도화지 공간부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는데 활동적이고 그림에 자신이 있는 아동들이 먼저 시작하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어리거나 소심한 아동들은 먼저 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리는 것을 지켜보다가 따라서 그리는 성향이 나타났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들이 각 팀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의 표현에 간섭하는 경향이 보였다. 아동들에게 모두 함께 완성하는 협동화이니 서로 의논해 표현하고 다른 아동이 무조건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일러주었다. 어떤 아동들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서로 마음에 안든다고 하며 싸워서 소란스러워 지기도 했다. 아동들이 협동화를 완성 할 때까지 기다려 각 팀마다 대표 아동을 뽑아 작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작품이 무인의 풍경과 물고기, 식인종, 야자수, 장작불, SOS구조신호 등으로 표현되었다. 아동들은 협동화 그리는 동안 재밌기도 했지만 의견충돌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아동도 있었다.</p> 

	<그림5-1> 협동화
2차	<p>1차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아동들이 먼저 각 팀원에게 그릴자리를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다. 각 팀의 다른 아이들은 별 거부 없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의 말을 따르고 있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리고 있는 아동에게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의 간섭이 간간히 계속되는 모습이 보였다. 1차시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그림을 크게 그려 도화지의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그릴 공간이 좁아지자 아동들은 자리를 이동해가며 다른 아동이 그려놓은 그림에 색을 칠하거나 더하여 표현함으로써 재밌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p> 
3차	<p>아동들은 협동화가 재미있다고 말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아동이 이번에도 다른 아동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아동들이 처음에는 그 아동의 말에 따르는 듯 보였는데 활동 중에는 그림의 전체적인 이야기에 맞게 자리를 자유롭게 옮겨가며 표현하고 있었다. 소극적이던 아동들도 그리기 쉬운 물고기나 다른 아동이 그려놓은 그림을 색칠하는 등 참여도가 높아진 모습이 관찰되었다. 3차시의 표현에서는 1, 2차시에서 볼 수 없었던 표현도 있었는데 결국 무인도에서 탈출 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작품</p>

	<p>과 사람들이 무인도에 집, 가게 등을 많이 지어 오히려 외부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된 유인도가 되었다고 표현한 작품도 있었다.</p> 
전체 차시 고찰	<p>1차시에 아동들은 의견충돌을 많이 보였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들과 소극적인 자세의 아동들이 확연히 드러났다. 2차시에는 주도적인 아동의 지시에 다른 아동들이 조용히 따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고 다른 아동의 그림에 자신의 표현을 더하려고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3차시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에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림의 내용에 맞게 표현하려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아동들은 다른 팀의 작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협동화가 정말 재미있다고 이야기하였다.</p>

<표19> 6회기

활동명	서로 다른 두 얼굴(가면 만들기)
수업 내용	
1차	<p>아동들에게 내가 되고 싶거나 좋아하는 나의 얼굴과 내가 싫어하는 버리고 싶은 나의 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어 써보고 각 가면을 썼을 때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해 보기로 하였다. 한 아동이 “내 얼굴 만드는 것 싫어요”라고 하며 “그냥 가면 만들면 안돼요”라고 말하였다. 아동들에게 “내 얼굴 만들기 싫은 사람은 동물이나 다른 모습으</p>

로 표현해도 된다”고 하였다. 아동들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얼굴을 표현하는 아동도 있었지만 동물의 얼굴로 대신 표현하는 아동도 많이 보였다. 내 얼굴로 표현하기 싫다던 아동은 ‘내가 좋아하는 얼굴’에 웃고 있는 도깨비 얼굴로 표현하고 ‘내가 싫어하는 얼굴’에 여자 귀신얼굴로 표현하였다. 가면을 써보고 작품 설명을 하였는데 도깨비 얼굴은 “그냥 ”이라고 대답하였고 귀신얼굴은 “꿈에서 봤는데 너무 무섭고 싫다”고 하였다. 또래 아이들보다 굉장히 왜소한 체격인 한 남자아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얼굴 가면만 만들겠다고 하며 중세 기사들이 쓰는 철가면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쓰고 칼을 휘두르는 행동을 취하며 “힘이 솟는 것 같다”고 하였다. 아동들은 나의 얼굴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가면을 표현하기보다 동물의 얼굴 등 다양한 모양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가면을 만들었다.



<그림6-1> 가면 만들기



<그림6-2> 가면 만들기

2차 이번 차시에는 나의 얼굴로 한 번 표현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아동들에게 직접 가면을 만들도록 하였다. 한 아동이 색이 있는 종이를 선택하여 그리자 몇몇 아동이 따라서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리기에 자신 없어하는 아동들은 교사에게 동그라미 형태를 그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동의 손을 잡고 같이 그려주는 것으로 도움을 주고 아동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내가 좋아하는 얼굴은 주로 웃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주로 화난 모습으

	<p>로 표현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얼굴은 주로 내가 기분이 좋을 때이고 내가 싫어하는 얼굴은 주로 내 주변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화낼 때라고 대답하였다.</p>
	 
	<p><그림6-3> 가면 만들기 <그림6-4> 가면 만들기</p>
3차	<p>가면 만들기 3차시에는 2차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내가 좋아하는 얼굴에 웃는 표정으로 내가 싫어하는 얼굴에 화난 표정으로 표현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이었다. 하지만 2차시까지 색채도구로만 가면을 표현하려했던 아동들에게서 꾸밈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단순하게 얼굴표정만 그려주던 표현이 얼굴 주변에 기분을 더욱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는 꾸밈재료로 음표, 주근깨, 곰팡이, 점 등 추가적인 표현을 나타났다.</p>
	 
	<p><그림6-5> 가면 만들기 <그림6-6> 가면 만들기</p>
전체	<p>1차시에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어색</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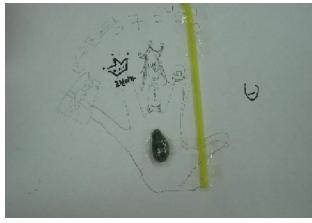
차시 고찰	해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2차시에는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의 표현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3차시에는 꾸밈재료를 사용해 각각의 감정에 따른 얼굴표정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	--

<표20> 7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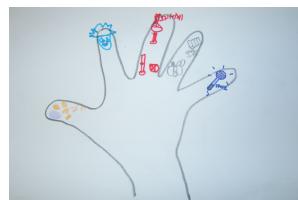
활동명	나를 응원해요! (깃발 만들기)
	수업내용
1차	<p>깃발의 용도에 대해 아동들과 간단히 의견을 나누고 나를 상징할 수 있는 나를 응원하는 깃발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준비된 다양한 색 도화지와 꾸밈재료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은 주로 네모, 세모 모양의 깃발모양을 만들었고, 태극기, 해골 등의 표현이 많이 관찰되었다. 태권도 1단이라는 아동은 태극기 모양으로 깃발을 완성하고, 어떤 아동은 해골 모양을 그려서 해적선 깃발처럼 표현하기도 하였다. 깃대에도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보였고 다른 친구들이 만드는 깃발에도 관심 있게 서로 보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띠었다. 깃발을 흔들어 보고 힘이 솟는 것 같은지 물어보니 아동들이 약간 쑥스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깃발을 들고 있었고 기념으로 사진도 찍어 주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그림7-1> 깃발 만들기 <그림7-2> 깃발 만들기</p>
2차	<p>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용품이나 운동경기 하는 모습, 동물, 해골그림에 추가적인 표현을 더하여 깃발을 표현하였다. 깃발</p>

	<p>만들기는 남자 아동이 주로 재미있어 하였는데 1차시보다 다양한 색이나 꾸밈재료을 사용하여 자신의 깃발을 장식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p>		
		<그림7-3> 깃발 만들기	<그림7-4> 깃발 만들기
3차	<p>아동들은 1, 2차시와 비슷하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경기나 해골그림, 동물, 글씨 등으로 주로 표현하였는데 전 차시보다는 꾸밈재료의 사용과 깃발 모양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일부 아동들에게서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 깃발이나 운동대회에서 1등을 한 모습을 표현한 깃발을 만드는 등 미래의 희망을 담은 표현도 나타났다</p>		
		<그림7-5> 깃발 만들기	<그림7-6> 깃발 만들기
전체 차시 고찰	<p>3차시까지의 깃발 만들기에서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로 표현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있는 태극기, 해적선 깃발 등의 표현이 두드러졌는데 점차 다양한 꾸밈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희망을 상징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긍정적 미래상이 표출되었다.</p>		

<표21> 8회기

활동명	선물 주고받기(손 본뜨기)
	수업 내용
1차	<p>회기를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자고 이야기하니 일부 아동들이 “진짜 선물이요”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선물도 있지만 마음으로 표현하는 선물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각 팀원별로 손 본뜨기를 하여 ‘주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은 선물’을 각자의 손가락에 돌아가며 표현해주기로 하였다. 원하는 순서대로 교사가 아동들의 손을 본 떠 주었다. 아동들은 본떠진 자신의 손을 보면 누구손이 더 큰지 친구들과 비교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손 본뜨기에 주고 싶은 선물을 표현하는데 장난스런 표현에 기분 나빠하며 하기 싫다고 하는 아동도 있었고 그 아동에게 같은 선물을 하며 장난스런 표현으로 대신하는 아동도 관찰되었다.</p>  
2차	<p>원하는 순서대로 손 본뜨기를 하기로 하니 아동들은 손 본뜨기가 재미있었던지 서로 먼저 손 본뜨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한 아동이 손을 최대한 크게 벌려 손 본뜨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아동들도 몇몇 손을 크게 벌리기도 하고, 오히려 손가락을 모두 붙여 그려달라고 하는 등 손 본뜨기 활동 자체를 재미있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8~9세 남자 아동들은 이번 차시에서도 키득키득 웃으면 평</p>

소 친한 친구들에게 뚱, 방귀 등을 그려 선물을 장난스럽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10~11세 아동들은 물질적인 선물을 많이 표현하였는데 돈, 집, 닌텐도, 땅, 선물상자 등으로 주로 표현하였다.



<그림8-3> 손 본뜨기



<그림8-4> 손 본뜨기

8~9세 남자 아동들은 손 본뜨기 활동 자체에 흥미를 많이 보였고 서로 먼저 그리려고 차례를 정하며 기다렸다. 이번에는 너무 장난스럽게 표현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수업을 시작하였다. 각 팀의 남자 아동들은 같은 팀의 여자 아동에게 더 짓궂게 표현하였으며 그 때문에 여자 아동들이 “이 애들 때문에 하기 싫다”고 말하기도 했다. 10~11세 남자 아동들은 이번 차시에서도 주로 물질적인 선물을 많이 표현하였고, 여자 아동들의 경우 상대방에게 바라는 행동을 글로 쓰며 표현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3차



<그림8-5> 손 본뜨기



<그림8-6> 손 본뜨기

전체 차시 1차시에 손 본뜨기에서 외향적 아동과 내향적 아동의 성격이 순서로 확연히 나타났고 선물을 표현하는 작업 중에는 아동들의 장난스

고찰	<p>런 표현이 많아 다소 소란스럽기도 했다. 2차시에 아동들은 손 본뜰 순서를 나름대로 정하여 다양한 손 모양으로 손 본뜨기 활동 자체를 재미있어 하였다. 3차시에도 아동들은 손 본뜨기 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았으며 남자 아동들은 여자아동들에게 주는 선물을 더 장난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p>
----	---

3). 개인별 변화 특성

3차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아동을 위주로 개인별 변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A아동

A아동은 9세 남자아동으로 부모님과 3형제 중 둘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다. A아동의 어머니는 A아동이 집안에서는 활발하지만 집 외의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는 말수가 적고 심하게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서 학교 담임선생님께서도 A아동의 상담에 내성적인 성격을 언급하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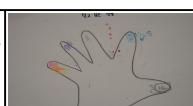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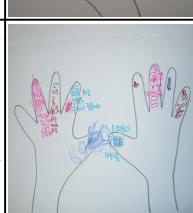
처음에 미술학원에서 A아동은 교사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했으며, 교사의 질문에 다른 행동을 하며 못 들은 척 행동하기도 했다. 자신또래의 남자 아동과 어울리길 하였지만 먼저 말을 걸거나 장난을 거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A아동은 주로 형들 옆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형들의 미술활동을 따라 하는 모습도 많이 관찰되었다.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A아동의 행동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22> A아동의 행동변화 특성

회기	주제	차시	작품 내용	그림
1회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1차	옆에 앉은 형이 야구공과 방망이를 만드는 것을 보고 따라서 만듬.	
		2차	주변 아동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생선과 오징어를 만듬.	
		3차	옆의 형이 만든 김밥을 보고 그 형보다 더 큰 김밥을 만듬.	
		전체 차시 고찰	전체 차시에서 주변아동의 작품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점차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회기	KHTP	1차	강한 필압과 지우개 사용이 잦았음.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체적인 그림이 작음.	
		2차	필압이 약해지고 지우개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표현 함.	
		3차	표현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이 크게 표현됨.	
		전체 차시 고찰	긴장된 표현에서 점차 긴장이 완화된 행동과 표현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크고 구체적으로 변하였다.	
3회기	나의 모습	1차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여자 얼굴 사진을 오려 붙여 표현하고 “그냥”이라고 말하고 다른 설명을 하지 않음.	
		2차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바바리코트를 입은 여자의 사진을 붙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 함.	

		3차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남자의 상의와 여자의 하의사진을 오려붙여 표현하고 악기, 생선, 손의 불을 표현하여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함.	
		전체 차시 고찰	단순한 표현에서 구체적 표현으로 점차 적극적이고 긍정적자아상으로 자기표현력이 증대되었다.	
4회 기	명화 비틀기	1차	한 아이가 여자를 그물에 가두어 폭탄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	
		2차	또 다시 그물에 가두어 번개, 폭탄 등 여러 무기로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함	
		3차	공격받았던 여자가 반대로 공격하던 아이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	
		전체 차시 고찰	자신의 생각을 방어 없이 표현하게 되었고 미술활동 자체에 즐거움을 나타내었다.	
5회 기	15소년 표류기 의 주인공 이 된다면.. (협동화)	1차	총 쏘는 사람을 그리고 다른 아동의 눈치를 보며 전혀 그리지 않음. 다른 집단원들도 그리다가 그리지 않음.	
		2차	바위 앞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과 물고기를 그려줌.	
		3차	나무, 사냥하는 사람들, 모닥불, 닭 등, 제일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려 줌.	
		전체 차시 고찰	집단 내에서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주변아동과의 상호교류도 잦아졌다.	
6회	서로 다른	1차	두 얼굴 모두 장난스럽게 표현하였고 '너무 좋아서'와 '너무 싫어서'라고 대답함.	

기 기	두 얼굴 (가면 만들 기)	2차	한 가지색으로만 표현했고 감정에 따른 표정을 각각 다르게 나타냄.	
		3차	가면에 색을 칠하고 감정에 따른 표정변화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표현함.	
		전체 차시 고찰	장난스러운 표현에서 진지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변하였다.	
7 회 기	나를 옹원 해요! (깃발 만들 기)	1차	태극기 문양에 해골그림을 그렸다가 솜공으로 가려 표현함.	
		2차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 경기하는 모습으로 표현.	
		3차	‘근육맨’이 되어 혁성을 막는 모습이라고 함.	
	전체 차시 고찰		꾸밈재료의 사용과 장난스런 표현에서 자신의 장점과 긍정적인 미래상을 나타낸 표현으로 바뀌어 갔다.	
8 회 기	선물 주고 받기	1차	제일 마지막에 손 본 뜸. 연필로 선물을 표현함.	
		2차	제일 먼저 손을 본뜨겠다고 하고 손가락을 찍 펌.	
		3차	친구들에게 방귀, 튀어나온 눈 그림 등 장난스런 선물을 표현하고 받고 싶은 선물로 닌텐도, 돈, 야구공과 배트 등을 표현함.	
	전체 차시 고찰		집단내의 소극적인 참여 자세에서 적극적인 참여자세로 바뀌어 갔다.	

② B아동

B아동은 11세 여자아동으로 부모님과 1남 1녀 중 첫째아이다. B아동 어머니의 말씀으로 B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여 B아동의 학업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하셨다. 그래서 남동생보다 B아동에게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하신다. B아동은 평소에 주변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온순하여 모범적이고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B아동의 어머니께서 B아동이 친한 동성친구가 없는 것이 신경 쓰이신다고 하셨다. B아동은 본 연구자에게도 매우 공손하고 인사도 잘하였다. 미술활동도 즐거워하며 묵묵히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다.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B아동의 행동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23> B아동의 행동변화 특성

회기	주제	차시	작품 내용	그림
1회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1차	고양이를 좋아한다며 주황색을 선택하여 고양이와 하트를 표현함.	
		2차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표현했는데 여러개 만들고 싶어 했음.	
		3차	자신이 좋아하는 주황색으로 평면적인 표현을 함.	
		전체 차시 고찰	좋아하는 색으로 입체적인 표현과 평면적인 표현을 하면서 다양하게 표현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회기	KHTP	1차	매우 빠르게 완성하였고 집안에서 동생이 노는 모습을 그렸다.	
		2차	진지하게 표현하였고 튼튼한 벽을 가진 집과 책을 읽기 싫어 잡든 사람을 그렸다.	

		3차	매우 커서 우주까지 자란 나무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표현되었다.			
		전체 차시 고찰	집안 내 환경에서 집 밖의 환경으로 나무와 사람의 표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회 기	나의 모습	1차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여자아동의 사진을 통째로 오려 붙여 표현함.			
		2차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 사진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장식품을 오려 표현 함.			
		3차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과 안경으로 공부를 잘하는 자신을 강조하고 하체는 펭귄인형 다리로 귀엽게 표현하였다고 설명함.			
		전체 차시 고찰	단순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던 나의 모습을 점차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표현하였다.			
4회 기	명화 비틀기	1차	우울해 보였던 그림이 우유광고에 나오는 모델로 바꾸어 표현하고 나니 활발해 보인다고 함.			
		2차	그네타고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즐거워 보인다고 함.			
		3차	수영을 못하는 아이에게 수영하는 아이가 놀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활발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함.			
		전체 차시 고찰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느껴졌던 원작을 자신의 감정을 대입하여 즐겁고 활발한 분위기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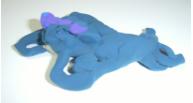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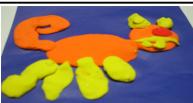
5회기	15소년 표류기 의 주인공 이 된다면. ..(협동 화)	1차	파스텔 사용을 좋아하였고 다른 아동이 자신의 그림에 추가하여 표현하는 것을 싫어함.	
		2차	자신 앞쪽에 물고기를 잡는 여자를 그리다가 다른 아동들에게 그릴 부분을 지시함.	
		3차	집단원들과 의논하여 무인도를 탈출하는 풍경으로 표현해 주었다.	
		전체 차시 고찰	자신의 자리만 고집하고 다른 아동에게 지시하던 행동에서 함께 의논하여 같이 표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6회기	서로 다른 두 얼굴 (가면 만들 기)	1차	흰 도화지를 선택하여 '웃는 얼굴'과 '못생긴 얼굴'이라며 대충 표현함.	
		2차	파스텔로 '나를 놀리는 얼굴'과 '웃는 얼굴'이라고 표현함.	
		3차	각각의 표정에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고 꾸밈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함.	
		전체 차시 고찰	점차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가면에 표출하여 표현하였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7회기	나를 옹원 해요! (깃발 만들 기)	1차	옆의 아동들이 해골문양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해골문양을 표현함.	
		2차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인 고양이와 꾸밈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함.	
		3차	깃발 형태를 펄럭이는 모양으로 오리고 수영장에서 마음껏 수영하는 모습이라고 함.	

		전체 차시 고찰	점차 깃발에 꾸밈재료와 형태를 변화하여 표현하였고 자신의 내면 속 바램을 표출하여 표현하였다.	
8회 기	선물 주고 받기	1차	집단원들에게 언어나 행동에 대한 정신적인 선물을 주거나 받고 싶다고 표현함.	
		2차	1차시에 다른 집단원들의 장난스런 선물이 싫다고 하며 손 본뜨기 싫어함.	
		3차	손 본뜨기는 먼저 하고 싶어 했지만 집단원들의 주고받는 선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며 자신도 장난스런 표현으로 선물하였음.	
		전체 차시 고찰	진지하게 생각하고 표현하였다가 다른 집단원들의 장난스런 표현에 마음이 상하여 흥미를 잃었는데 다른 집단원들처럼 장난스런 표현으로 선물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② C아동

C아동은 9세의 남자아동으로 부모님과 1남 1녀 중 막내이다. C아동은 또래아이들에 비해 체격이 왜소한 편인데 어렸을 때부터 편식이 심했다고 한다. C아동 어머니의 말씀으로 C아동은 처음 보는 아동에게 먼저 말을 걸만큼 사교성이 좋지만 조금 서운한 말에도 금방 토라지고 우는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다고 한다. C아동은 양손잡이로 미술활동을 굉장히 좋아했으며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혼잣말로 계속 하는가하면 주변 아동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주변아동과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하였으며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말수가 많은 편이었다.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C아동의 행동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24> C아동의 행동변화 특성

회기	주제	차시	작품 내용	그림
1회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1차	좋아하는 색으로 파란색을 선택하여 뱀을 표현함.	
		2차	파란색과 검은색을 섞어 만들고 “에어리언”이라고 말함.	
		3차	평면적인 표현으로 웃고 있는 고양이를 표현함.	
		전체 차시 고찰	단순한 색의 선택과 형태표현에서 점차 색의 사용과 표현방법이 다양해졌다.	
2회기	KHTP	1차	세찬 비가 오는 날씨와 그 비를 우산으로 막는 사람, 나무 괴물을 표현 함.	
		2차	번개 치는 날씨와 울고 있는 나무, 나무 구멍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표현 함.	
		3차	집, 나무, 사람 순서로 그려주고 굉장히 큰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서 놀라는 모습이라고 함.	
		전체 차시 고찰	전체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그림의 분위기가 점차 안정적인 분위기로 변하여졌다.	
3회기	나의 모습	1차	잡지책에 나오는 사진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함.	
		2차	여러 사진을 붙여 합성놀이라고하며 재미있어했고 자신을 ‘잘 웃는 아이’라고 표현함.	

		3차	자신은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크게 나온 신발 사진을 오려 붙여 발을 강조하여 표현함.	
		전체 차시 고찰	사진을 오리고 붙이는 과정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다가 자신의 장점이나 특징을 조금씩 반영하여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4회 기	명화 비틀기	1차	다리위에서 떨어질 것 같아 보였는데로 봇인간으로 바꾸어 표현해주시니 재미있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함.	
		2차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모습으로 표현해주시고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다고 함.	
		3차	저수지 다리 위를 가다 모자를 떨어뜨릴 것 같다고 하고 오늘 작품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함.	
		전체 차시 고찰	어두운 원작의 그림을 자신의 감정을 대입하여 밝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색으로 표현해주었다.	
5회 기	15소년 표류기 의 주인공 이 된다면. ..(협동 화)	1차	야자나무를 그리고 바닷물을 칠할 때 손으로 문질러 표현함.	
		2차	다른 아동이 그린 야자나무에 열매를 그려주고 바다를 색칠 함.	
		3차	바다에 사는 상어, 괴물 거북이, 육지에 글로 치킨가게라고 표현 함.	
		전체 차시 고찰	자신이 그리고 싶은 부분만 그리다가 다른 아동에게 함께 그리기를 권하고 점차 다른 아동의 그림에 자신의 표현을 더하면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표현하였다.	

6회기	서로 다른 두 얼굴 (가면 만들기)	1차	두 얼굴 표정을 비슷하게 표현해주고 '너무 기뻐서'와 '너무 슬퍼서'라고 이야기 함.	
		2차	비슷한 표정으로 '화가 난 얼굴'과 '웃는 얼굴'이라고 표현함.	
		3차	표정과 색을 다르게 선택하여 표현하고 '웃는 얼굴'과 '화가 난 얼굴'이라고 함.	
		전체 차시 고찰	비슷한 표정 표현에서 점차 구체적 감정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뀌어 갔다.	
7회기	나를 응원 해요! (깃발 만들기)	1차	흰 도화지를 선택하여 뱀과 괴물을 그려 주고 색칠은 하기 싫다고 이야기 함.	
		2차	색이 있는 종이를 선택하여 별과 우주선을 표현하고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 함.	
		3차	우주에 나가 직접 태양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표현함.	
		전체 차시 고찰	깃발에 나타난 표현이 점차 희망적인 미래상의 표현으로 바뀌어 갔다.	
8회기	선물 주고 받기	1차	손 본뜨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했고 집단원에게 장난스런 선물표현을 많이 함.	
		2차	여전히 손 본뜨기를 재미있어하였고 집단원에게 장난스런 표현을 계속 함.	
		3차	교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을 본 뜸. 여전히 장난스런 선물을 표현하였으나 꾸밈재료도 사용하여 표현.	
		전체	손 본뜨기 활동 자체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직접 본떠	

		차시 고찰	보는 등 재미있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	----------	------------------------

4). 프로그램 설문조사 및 분석

각 차시 프로그램 종료 후 아동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문1. 나는 내 자신의 미술활동에 대하여 만족 한다.

<표25> 개인별 미술활동 만족도

구 분	1 차	빈도 (명)	비율 (%)	2차	빈도 (명)	비율 (%)	3 차	빈도 (명)	비율 (%)
매우 그렇다		10	50%		11	55%		12	60%
대부분 그렇다		3	15%		2	10%		5	25%
보통 그렇다		4	20%		5	25%		2	10%
약간 그런 것 같다		3	15%		2	10%		1	5%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계		20	100%		20	100%		20	100%

각 차시 프로그램을 모두 끝마치고 자신의 미술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아동들은 자신의 미술활동에 대하여 1차 85%, 2차 90%, 3차 95%가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보통 그렇다’로 대답한 것으로 보아 점차 자신감과 성취감이 증대되어 자기긍정감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2. 나는 집단 내에서 규칙을 잘 지켰다.

<표26> 자발적 규칙 준수

구 분	1	빈도	비율	2	빈도	비율	3	빈도	비율
-----	---	----	----	---	----	----	---	----	----

	(명)	(%)		(명)	(%)		(명)	(%)
차	7	35%	차	9	45%	차	12	60%
	3	15%		3	15%		5	25%
	6	30%		5	25%		2	10%
	3	15%		3	15%		1	5%
	1	5%		0	0%		0	0%
	20	100%		20	100%		20	100%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아동들에게 ‘다른 아동에게 피해가되는 행동 하지 않기’, ‘작품 활동 후 자신의 자리 정리하기’는 꼭 지키기로 했었다. 규칙준수에 관한 조사결과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보통 그렇다’로 대답한 아동이 1차 75%, 2차 85%, 3차 95%로 대답한 것으로 보아 아동들은 자발적 규칙준수에 점차 긍정적으로 행동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문3. 집단 내에서 협동화를 할 때 나는

<표27> 협동화 참여도

구 분	1	빈도 (명)	비율 (%)	2	빈도 (명)	비율 (%)	3	빈도 (명)	비율 (%)
차	열심히 참여 하였다	12	60%	차	11	55%	차	14	70%
	어느 정도 참여 하였다	7	35%		9	45%		6	30%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1	5%		0	0%		0	0%
	계	20	100%		20	100%		20	100%

협동화 수업을 마치고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열심히 참여 하였다’, ‘어느 정도 참여 하였다’라고 대답한 아동이 점차 증가한 수치로 보아 협동화 과정 중 아동들의 상호교류 과정을 파악 할 수 있고 점차 긍정적으로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4. 수업을 끝내고 난 후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나요?

<표28> 총체적 프로그램 만족도

구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 흥미로웠다	1 차	7	35%	2 차	9	45%	3 차	14	70%
흥미로웠다		6	30%		7	35%		3	15%
잘 모르겠다		4	20%		2	10%		3	15%
흥미가 없었다		3	15%		2	10%		0	0%
계		20	100%		20	100%		20	100%

각 차시 모든 수업을 마치고 아동들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 ‘매우 흥미로웠다’,와 ‘흥미로웠다’라고 대답한 아동이 1차 65%, 2차 80%, 3차 85%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아동들은 미술치료를 활용한 미술교육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5.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은?

<표29-1> 각 프로그램 선호도

구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점토	1 차	7	35%	2 차	5	25%	3 차	5	25%
KHTP		0	0%		0	0%		0	0%
꼴라쥬		4	20%		4	20%		1	5%
명화 비틀기		0	0%		0	0%		0	0%
협동화		5	25%		6	30%		9	45%
가면 만들기		2	10%		1	5%		1	5%
깃발 만들기		2	10%		4	20%		3	15%
손 본뜨기		0	0%		0	0%		1	5%
계		20	100%		20	100%		20	100%

이유는?

<표29-2> 각 프로그램 선호도

구 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재료가 마음에 들어서	1 차	11	55%	2 차	8	40%	3 차	5	25%
		3	15%		4	20%		3	15%
		5	25%		6	30%		12	60%
		1	5%		2	10%		0	0%
		20	100%		20	100%		20	100%

각 차시 모든 수업을 마치고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아동들은 1차 ‘점토’, 2차 ‘협동화’, 3차 ‘협동화’를 가장 재미있었다고 선택하였다. 선택 이유로 1차 ‘재료가 마음에 들어서’, 2차 ‘재료가 마음에 들어서’ 3차 ‘수업과정이 재미있어서’를 선택한 아동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아동의 미술활동에 재료와 수업의 진행과정이 미술수업 선호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문6. 가장 하기 싫었던 수업은?

<표29-3> 각 프로그램 선호도

구 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점토	1 차	0	0%	2 차	0	0%	3 차	0	0%
		2	10%		1	5%		0	0%
		1	5%		1	5%		2	10%
		3	15%		2	10%		3	15%
		0	0%		0	0%		0	0%
가면 만들기	1 차	1	5%		2	10%		2	10%
		2	10%		2	10%		1	5%
		11	55%		12	60%		12	60%
		20	100%		20	100%		20	100%

이유는?

<표29-4> 각 프로그램 선호도

구분	1 차	빈도 (명)	비율 (%)	2 차	빈도 (명)	비율 (%)	3 차	빈도 (명)	비율 (%)
재료가 마음에 안들어서	2	10%		1	5%		1	5%	
결과물이 마음에 안들어서	2	10%		3	15%		5	25%	
수업과정이 재미없어서	12	60%		13	65%		12	60%	
이유 없음	4	20%		3	15%		2	10%	
계	20	100%		20	100%		20	100%	

가장 하기 싫었던 수업으로는 1차, 2차, 3차 모두 ‘손 본뜨기’를 선택한 아동이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 ‘수업과정이 재미없어서’를 선택한 아동이 가장 많았다. 아동들은 손 본뜨기 수업과정에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선물이 너무 장난스럽게 표현되어 싫었다고 한다. 이 결과는 아동 상호간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교류관계가 공동미술활동수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미술교육이 아동의 정서교육 측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학교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서론에서는 현대 아동에게 정서교육 측면으로서의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아동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이론적 바탕을 살펴보고 검토함으로써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접점을 고찰하였다.

셋째, 미술치료를 활용한 미술교육 방법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자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1차, 2차, 3차에 걸쳐 8~11세 아동에게 실시하고 관찰 기록하여 회기별, 차시별, 개인별 고찰을 하였다.

넷째, 결론에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나타난 관찰내용과 결과를 통해 미술교육에서의 새로운 교육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안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점토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통해 아동은 감정이 이완되고 유연해져 긴장감을 해소하는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재료의 특징을 알고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표현해 봄으로써 창의성을 키울 수 있었다. 완성된 작품은 아동으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고 질감, 양감, 운동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유도할 수 있었다.

2. KHTP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통해 아동의 심리상태와 성향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3. 꼴라쥬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통해 그림에 자신감이 없거나 거부감이 있는 아동도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고 아동의 자기긍정감이 증대

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여러 사진을 조합하여 표현해 봄으로써 아동들의 창의적 구성능력도 향상되어 갔다.

4. 명화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통해 작품 감상법을 경험하고 작품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을 표출 할 수 있었고 발상을 전환하여 표현해 볼 수 있었다.

5. 협동화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통해 아동 상호간에 의견 충돌과 협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기능이 향상되어졌고 집단내의 소속감과 공동의 성취감을 느끼며 서로 다른 아동의 표현을 접하면서 표현력이 향상되어갔다.

6. 가면 만들기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내면 속 깊은 감정을 살펴보는 계기를 갖고 표현해 볼 수 있었으며 감정이 순화되어 긍정적 자아상을 찾게 되었고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로 표현력이 향상되어 갔다.

7. 깃발 만들기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여 표현해 봄으로써 자기긍정감이 증대되어 긍정적인 미래상을 갖고 표현 할 수 있었다.

8. 손 본뜨기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를 본 떠 표현해 봄으로써 자아 감각이 발달하였다.

또한 각 회기별·차시별·개인별 아동의 행동변화를 관찰 기록하여 고찰한 결과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성격의 아동들에게서 1차시에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마음껏 표출하지 못하였다가 점차 자신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다른 아동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아동에게서는 점차 다른 아동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아동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 동일 프로그램을 적용한 미술수업을 하면서 전 차시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솔직한 감정표현이나 새로운 재료의 활용으로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며 창의력과 표현력이 향상된 모습이 관찰되었고 그럼으로써 자기긍정감과 성취감이 증대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아동들은 자신의 미술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자발적 규칙준수, 협동화에서의 참여도,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수치가 점차 증가

한 결과로 보아 위의 효과를 뒷받침 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처럼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각각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들에게 주는 정서적·인지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실시한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현장이 아닌 미술학원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실시되었다는 점과 소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자가 관찰 기록하여 고찰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다소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실제 학교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일반 아동의 정서교육측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술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니만큼 학교 교육현장에서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을 한다면 아동을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정서적 문제발생의 예방적 차원으로서의 교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향후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교육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개발되어 학교교육에 활용할 객관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동연 외(2002), 『아동미술심리이해』, 서울 : 학지사.
- 김재은(2002),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 교육과학사.
- 김 정(1985), 『아동회화의 이해』, 서울 : 창지사.
- 로웬펠드, 브리테인(2006),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 연구회 웜김, 서울 : 미진사.
- 아이스너(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서울 : 예경.
- 오종숙(1998), 『유아미술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백록 출판사.
- 이규선 외(2003),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 정명주 외(2006), 『표현에서 치유로 아동미술치료, 이렇게 하세요』, 서울 : 형설출판사.
- 주디트 루빈(Judith A. Rubin, 2006), 『미술치료학개론』, 김진숙 웜김. 서울 : 학지사.
- 한국미술치료학회(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 동화문화사.
- H. Read(1958), Education through Art, Faber and Faber, London.
- Janet Bush(1997), 『The Handbook of Art Therapy』 .
- R. Kellogg(1970), 『Analyzing children's Art, California』, National press book.

국내논문

- 강현영(2003),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적 표현기법을 위한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준범(2002), “미술심리치료검사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길은영(2006),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미술치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정(2004), “초등 교육과정에 적용한 미술치료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선(2003), “미술치료를 위한 재료의 표현가능성과 활용방안”,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정(2002),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

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아영(2005), “아동미술교육의 통합적 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은진(2005), “학교교육에 미술심리치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은지(2005), “학교 미술치료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2008), “미술치료기법을 적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세은(2003), “미술치료를 응용한 미술교육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간행물

- 김향미(2005), “미술교육에 있어서 미술치료적 관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조형교육 제 26호.
- 백중열(2006), “초등교육에서 미술치료의 이해와 역할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 20권 1호.
- 이경원(2004), “학생의 사회성 결여 현상에 따른 학교환경 내 집단미술치료 도입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8권 1호.
- 이경원, 노용(2004), “아동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조형교육 제 23집, 한국조형교육학.

부 록

설 문 지

1. 나는 내 자신의 미술활동에 대하여 만족한다?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부분 그렇다
- ③ 보통 그렇다
- ④ 약간 그런 것 같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나는 집단 내에서 규칙을 잘 지켰나요?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부분 그렇다
- ③ 보통 그렇다
- ④ 약간 그런 것 같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집단 내에서 협동화를 할 때 나는 어땠나요?

- ① 열심히 참여 하였다
- ② 어느 정도 참여 하였다
- ③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4. 수업을 끝내고 난 후 여러분의 느낌은 어땠나요?

- ① 매우 흥미로웠다
- ② 흥미로웠다

③ 잘 모르겠다

④ 흥미가 없었다

5.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은?()

이유는?

① 재료가 마음에 들어서

② 결과물이 마음에 들어서

③ 수업과정이 재미있어서

④ 이유 없음

6. 가장 하기 싫었던 수업은?()

이유는?

① 재료가 마음에 들어서

② 결과물이 마음에 들어서

③ 수업과정이 재미있어서

④ 이유 없음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 술	학 번	20012043	과 정	석 사
성 명	한글: 조 창 주 한문 : 趙 昌 株	영문 : Cho Chang Ju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해광상그릴라 아파트 102동 207호				
연락처	E-MAIL : jupass @ 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아동미술교육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효과 에 관한 연구 영어 : A Study on the Effects of Art Therapy Program on Child Art Educa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10 년 2 월

저작자: 조 창 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